

<1998년 사회운동단체조사 결과 - 조직특성과 관련하여>

1. 여성운동단체

<중앙의 협의체, 연합체>

인터뷰내용과 조사자가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던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였다. 되도록이면 조사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인터뷰내용이라면 인터뷰에 응했던 분이 쓰신 단어 그대로를 적으려고 노력했다.

1. 대한YWCA연합회

위치 및 사무실 환경

명동성당 앞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건물 2층 (건물주 YWCA)/ 전체 큰 사무실을 사람 목정도의 칸막이로 막아 업무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한 칸막이에 대략 5-6개의 책상을 배치

문이 3개정도/ 아주 큰 회의실이 있고, 사무처장님실이 따로 있음. 큰 회의실의 목적은 다용도인것 같다. 방문시마다 첫 번째 방문때는 회의를, 두 번째 방문때는 직원 전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

사무실한쪽에는 동전모으기를 하는 모양. 동전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었음. PC는 칸막이마다 적어도 2개이상씩 거의 책상마다 있는 형태였다. 하지만 PC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았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diskcopy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약간 찢찢때는 모습을 보였음.

1. 대한 YWCA(이하 대한Y)는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조직이다. 설립초기보다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졌으며, 1922년 물산장려운동. 직업여성기숙사운동. 대학생 Y활동 등을 통한 여성의 다양한 직종개발, 여성지도력 기르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한 운동단체이다.
2. 예전에는 바자회등은 대한Y만 한 독특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다 비슷하게 이러한 행사를 한다. 주로 예산은 회비, 회관임대료(대한 Y건물을 의미), 찬조금, 행사모금(바자)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3. 1년마다 전국규모로 회원을 증모하는 기간있으며, 회원재등록사업을 통해서 회원들과의 유대를 도모하며, 모든 회원들은 전산처리되어있으며 언제나 대한Y가 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Y회원들에게 신문이나 회원안내서를 통해 안내한다.
4. 대한 Y는 많은 활동을 하지만 일반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바른삶찾기'아.나.바.다(아껴쓰기.나눠쓰기.바꿔쓰기.다시쓰기)운동"직업훈련'운동과 자원봉사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일반시민중심으로 하면 회원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행사나 활동프로그램은 회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5.대한Y는 다른 단체들에 비해 많은 대학생회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많은 조직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대한Y '공명선거실천협의회'와 함께 처음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선거를 해야하는지 하는 선거계몽운동을 연대하였다. 또한 한국노총과 더불어 '여성직종개발'여성기능대회'을 치루었으며, 이행사 노총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제빵업계, 미용업계와도 연대하였다.
6. 정보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직접, 가까이에 다가온문제다. 좀 있으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대한Y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리안에 대한Y 게시판이 있다.

7. 오랜동안 종사하고 있고, 어떤 생각(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2.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1998. 1. 22. 사무실)

1. 여성지위향상의 목적을 가진 협의체이다.
2. 설립초기와 비교하였을 때 회원단체 수가 5배로 증가하였다.
3. 소식지로 「월간 여성」이 있으며 회원용이고 무가지 이다. 또한 1년에 한번씩 <영문여성>이 출간된다.
4. 회원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단체별로 년 10회 이상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으며 1회시 20-30명이 참여하고, 중앙에서 직접 연 2-3회 매스컴 모니터 교육을 하는데 1회 50-60명이 참여한다. 연속해서 참여하는 인원은 10명 내외이다.
5. 예산확보는 후원금이 주를 차지하고 회비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개인 회원을 늘리기 위하여 「여성지」를 기관에 보내 회원단체의 증가를 꾀하고 있다.
6. 회원들의 관리는 각 단체장, 임원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연초·하반기에 연수가 있고, 일반회원은 정책 간담회등 행사시 홍보와 초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시민들과의 접촉도 직접 전화상담, 건의, 캠페인,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7. 이 단체는 여성단체라는 특성으로 여성들에게는 우호적이지만 남성들에게는 인식이 좋지 않다. 실례로 공무원 임용시 “목표할당제” 운동시 남성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
8. 연대활동은 ①NGO위원회 참여: 북경 여성대회 기획 ②할당제 여성 연대: 여연, 여협, 여성정치단체-국회의원·지자체 시 여성할당 주장 ③고용평등법 개정: 여성단체와 노조 ④김보은 김진관 사건: 여연 ⑤외채상환 금모으기 운동: 농협, 시민사회단체(경실련, MBC등)
9. 현재 노동조합과 고용평등법 개정 문제로 연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과 분리되어 있는 운동단체의 단점을 노동운동단체와 연대함으로써 보완할수 있다고 생각함.
10. 컴퓨터 통신을 통한 운동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경제적으로 기계를 활용하는데 열악한 환경이다. 따라서 인력·재정적 어려움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3.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치와 사무실환경 및 분위기

중구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빨간벽돌집1) 2층위치.

“참, 이거 단체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 조사 담당하는 교수님은 누구예요”

“연락처하나 써 주시고,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조사자보다 더욱 능란한 모습이였다.

1. 과제별, 지역별 여성부분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연합조직이며 초기 19개조직에서 현 27개조직으로 조직규모가 확대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만 이렇게 확대된 것이 아니라 여연의 회원단체들도 몇몇 단체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특히 여성의 전화는 전국조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여성문제에 대해서 대중화되지 않고, 즉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성문제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작은돈모으기’가 잘 되지 않을뿐더러 기업도 환경단체 등 다른 단체에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으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아직 기업도 여성운동에 대

1빌딩이라기 보다는 규모가 작고, 집이라기에는 약간 차가운느낌이 드는 빨간 벽돌의 집

한 인식도가 낮다. 예산의 50%는 외국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회비와 국내모금으로 충당한다. 여러 가지 재정사업을 하지만 그중에도 일일호프, 음악회, 자료후원회원(여연은 자료만을 정리한 방이 있었다. 자료는 벽면 2면에 가득채워져 있었음)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한다.

3. 단체회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연대를 한다든지 항상 회원관리를 한다.

4. 일반시민들은 여연을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여연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며 주제에 따라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게 온다.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은 경우에는 잘 한다라는 전화도 오고, 사안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이 사무실로 전화를 통해서 전달된다.

5. 나우누리, 여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며, 통신공간속에서 여성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가 여성운동을 확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연이 주도적으로 연대모임을 하고 있고 시도도 하고 있다(97년데 정보통신부에 제기) 여연은 정보방이라고 따로 정보를 관리하는 독자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의 책상마다 PC가 있었음.

6. 전업활동가로서 노동강도가 크고, 재훈련기간이 없어서 가장 어렵다.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그 수준에서 산다. 절약하면서 살아야지 별 수 있나

7. 본 단체출신으로 선거에 출마한 분들이 있으며 사안별로 연대하고 있다.

4.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위치. 사무실 환경 및 분위기.

중구 남창동 새로나 백화점 6층/ 6층 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왼쪽만 사용하고 있음. 6층에는 새로나 백화점 사무실은 오른쪽에 그리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같은 쪽에 여행사가 위치하고 있었음

사무실과 강습실이 연결되어 있었고, 강습실과 사무실의 문은 방문할 때마다 열려져 있었고 항상 회원들이 많이 강습실에 있었다.(낮시간이건 오후시간이건)

1.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이하 주부클럽)은 여성소비자환경보호운동을 하는 단체이며, 1942년 김활란여사의 수요클럽에서 시작되어서, 회원수도 증가하였고, 주제면에서도 초기의 여성문제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지금은 소비자 환경등으로 주제가 확대되었다.

모든 모임마다 월례회를 하고 매월 재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회원회비와 국고보조가 예산의 중심이고 특히 회원회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별다른 재정사업은 없다.

2. 클럽별로 회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회에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월례회 행사안내 등 전화나 소식지를 통해 행사안내정도만 해준다.

3. 여성단체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주부클럽'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행사가 많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우호적이다. 특히 회원들은 '주부클럽'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구성회원들이 주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과 접촉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고, 주부도 일반시민이다. 일반시민들이 무관심하다라고 하지만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보면 행동만 안하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4. 주부클럽은 신세계백화점과 별써 29회째나 매주 젓갈바자회를 통해서 연대활동을 하고 있음.

5. 정보민주주의는 자료수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료들이 수박 겉핥기식이다. 꼭 필요한 자료들은 없는 것 같다. 대중화된 자료들만 이다.

6. 전업활동가로서 업무량이 너무나 많고, 월급이 작다. 경제적문제는 그냥 그 수준에 맞추어서 생활한다.
7. 운동단체의 대표는 대개 명망있는 인사가 맡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주부클럽연합회장이 시의원으로서 활동중
9. 운동단체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단체가 엘리트에 의해 구성되기때문에 상명하달식이 된다고 생각.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5. 한국부인회

위치. 사무실환경 및 분위기

서부지청뒤에 2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 대문은 활짝 열려있고, 마당은 거의 없으며 한결에는 우유팩(재활용)접은 것이 잔뜩 쌓여져 있음. 사무실안으로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음. 사무실은 일반사무를 보는 책상이 3개정도 놓여져 있고, 벽면에는 각종 감사패와 상패가 즐비하게 놓여져 있음. 한쪽 방은 회장실이 따로 있고 문은 없지만 한쪽 공간에 부회장등 임원책상이 따로 있었다. 임원책상들이 있는 한쪽 공간은 방처럼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곳에도 상패와 감사패 트로피가 벽면에 놓여 있었음.

pc가 전체사무실에 하나밖에 없었다. (회장실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장실을 제외하고)

한국부인회내부사정으로 인하여 97년도 사업이 별로 진행된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설문에 응할수 없다고.. 내부사정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97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97년에 관한 설문에 응하겠다고

1. 1948년 임영신여사가 만드신 대한부인회가 전신이며, 잠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1962년에 시민단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옛날지방조직을 규합해서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적단일조직으로 다시 만들어 졌다.
초기에는 부인들의 주부대학 즉 식생활개선운동.국산품애용운동 등 교양을 위한 교육을 주로 했다면 1965년이후에는 소비자보호 70-80년대에는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등으로 주제를 넓혀나갔다. 내용면에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조직적인 면에서는 변화한 것이 없다. 설립목적은 여성의 발전이며 실질적 행동지침이 생활개선에 있었고, 요즈음은 여성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시민정신교취운동이다. 여성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여성차별이다.
2. 회원교육프로그램은 지정된 프로그램은 없지만 그 당시 시기에 따라 그해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올해는 소비자 교육에 있어서 '에너지는 달려다'라는 기초아래 회원프로그램으로 이용.
3.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 예산의 50%를 국가보조로 받기 때문에 간섭이 심하다. 감사다 영수증이다. 너무나 힘이 든다. 민간단체는 아직까지 열악하다.
나머지 50%는 회비를 통해서. 재정담당은 본부이사회. 도/시이사회에서 책임진다.
4. 교육장에서 일반시민들과 만난다. 구체적인 예로는 96년도 1년동안 '교통질서확립'이라는 슬로건아래 일반시민들과 대중교통이용캠페인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서울시 25개 행정구역 20개지부에서 지부회원 및 임원들 그리고 동네분들이 참가하여 활동했던 캠페인이었다.
5. 문민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야권운동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거부하는 운동을 했지만 우리 한국부인회는 구성원비율이 주부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부인회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우호적이였다.

6. 지금 일반시민들의 환경.소비자의식은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있고, 공공관심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비하면 공공관심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옛날과 비교를 많이 함)
7. 비영리 비정치적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하지 않는다.
8. 운동단체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갑자기 소리를 낮춰 “우리단체의 문제다. 평생 이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위해 살다보니 회장은 부인회를 내조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주를 한다.”

6. 소비자 보호 단체 협의회 (1998. 2. 10 사무실)

1. 민간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로서 민간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소비자 업무의 실무를 담당한다.
2. 소식지로 월간지 「소비자」가 있으며 관공서, 각급 학교 도서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회원단체의 활동을 싣고 있다.
3. 이 단체는 예산 확보가 정부의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확보시 별 어려움이 없다.
4. 이 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원들의 관리나 접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회원단체내에 있다. 이곳에서는 각 회원단체에 접수된 상품고발과 같은 문제를 조사·검사하는 일을 한다.
5. '97년 암웨이 세제에 대한 문제점 제기등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연대하였고 노동단체와 연대한 적은 없다.
6.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서로의 정보가 빨리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이 단체는 회원단체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7.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위치 및 사무실 환경

논현동 영동소방서 뒷편에 위치한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이하 대한 어머니)는 본회 건물을 소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가정관리과 출신.

1. 대상이 18세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방까지 규제하는 중앙조직이고 주로 프로그램교육등을 한다. 예전에는 여성단체가 별로 많지 않아서 국가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컸으나 지금은 시민운동단체로 변모했고 많은 단체들이 생겨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적어졌다.
2. 주로 지방연합회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환경모니터, 방송모니터, 영육아보육사, 생활예절 등과 같은 회원교육프로그램이 있다.
3. 주요한 행사때마다 재정위원회를 만들어 임원들이 후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재정을 해결하고 있다. 요즈음하는 사업으로는 40년사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40년행사를 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을 한다.
4. 대한어머니는 이름에서 주는 푸근함이 있어서인지 우호적이라고 생각. 우리도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대한어머니회를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5. 일반 시민들 중에는 공공관심사에 대해 없는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문제는 관심이 있던 사람도 없어지는 판국인데, 원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다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관심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6. 정보민주주의가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운동단체안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다. 단체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 하지만 운동단체끼리 별도의 통신망을 구성한다면 참여는 하겠지만 과연 만들어 질수 있을지는 별로..

단체간의 이미지도 있고, 자기회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즉 자기회의 부족한 부분은 내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자기회에 대한 보수적인 면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서 운동단체끼리 별도의 통신망을 꾸려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7. 전업활동가로써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려면 투철한 시민운동의식이 있어야 하고 단체의 성향과 개인활동가의 성향이 일치해야 잘 활동할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절약해야지 ..

8. 단체의 대표로 명망있는 인사가 맡게 되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말해서 찬성한다. 단체인식도를 이해서 시민운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명망있는 인물과 단체생각이 비슷해야 한다. 그러면 단체를 위해 이러한 인물이 대표가 되는 것에 찬성한다. 어짜피 회장이 모든일을 다 관할 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머니회는 회장이 실제로 활동에 다 참여하고 회를 관리한다.

9. 운동단체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특정 개인의 단체가 아닌 이상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회는 중앙이사회가 매달있고 회장단회의는 분기별로 있어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8. 서울 YWCA

대한 YWCA와 같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한 YWCA는 칸막이를 통해 확실히 공간이 분할되어 있었다면 서울 YWCA는 낮은 칸막이로 서로의 활동이 다 보일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었다. 부서별로 계속 들여 오는 벨소리로 얼마나 바쁜지 알 수가 있었다. 거의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고 움직이고 있던지 아니면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 사람을 만나는 사람 몹시 분주해 보였다. 설문지에 응해주신 최수경부장님 사무실과 전현숙간사 그리고 사무처장님은 각각 다른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전현숙간사는 낮은 칸막이가 있는 큰방에 공보출판부에 최수경부장은 다른 몇몇 간사와 좀 작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공부출판부가 있어서 더욱 친절하고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다.

1. YWCA에서 Y는 젊다라는 정신을 나타내고 있고 W는 여성을 의미하고 C는 기독교정신을 기독교의 봉사정신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꼭 기독교 신자만이 서울 Y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서울 Y는 초기에는 사회 계몽차원에서 여성계몽선교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환경, 청소년, 여성, 노동, 모니터활동 사회운동전체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 Y는 75년 역사성 있는 단체이다.

2. 서울 Y에서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원교육프로그램으로는 복지부분에서는 노인을 위한 은빛잔치, 청소년부분에서는 유해환경경제캠페인, 환경부분에서는 어린이, 주부, 청소년모두가 참가하여 우리나라 오염실패과약을 하는 환경여행이 있다.

3. 주로 소식지를 통해서 연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 서울 Y는 일반시민들을 만나는 데 별로 어렵지 않다.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지명도가 있기에 시민들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또한 소비자 상담실, 캠프 등을 통해 시민들과 수시로 접촉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80년대는 '떠 두든다'라는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반시민이 우호적이고 격양된 듯한 분위기는 없다.
5. 일반시민들이 공공관심사에 대해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모든것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지파동'이 일어나면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무관심하지 않다.
- 6.정보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유용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초반에는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정보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올해는 추진하자라고 하고 있다.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 우리의 수준은 아직까지 서로 '방'만들기에 바쁘다. 시민들에게는 소모적일 수 있다.(이방 저 방 가야되고 '방' 가봐야 별 것 없고.) 또한 운동단체끼리 별도의 통신망을 구성한다는 것이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단체마다 수준도 다르고 정보량도 다르고 만약 별도의 통신망이 구성된다면 참여할 생각은 있다.
7. 전업활동가로써 어려운점은 많지만 서울Y는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일에 대한 매력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일반회사에서는 이러한 다야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만족한다. 부모님과 동거하기 때문에 생활을 위한 유지비만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아껴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8. 운동단체의 대표가 실제로 일을 안하고 이름만 내건다면 그런 단체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근자 즉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나에 따라 그런 단체들의 잘되고 못되는 것이 결정나는 것 같다. 서울Y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비판은 없다.

9. 부산 YWCA.

주소 : (601-013) 부산 동구 초량3동 1158-7.

전화 : 441-2221.

연락 : 이명옥 사무부장.

통신 : ?

방문 : 98. 2. 6.

회원관리 : 계층별 구성. 시민도 참여하는 강습반 중심. 이슈별 강의, 토론 조직. 연수.

11개 위원회로 구성. 총괄은 하지 않음.

예산문제 : 강습반 등의 프로그램, 건물 임대료, 회비(20%), 위탁사업(청소년 유해환경 등), 장날, 생협 직거래 등의 방법. 전체적으로 그리 여유있지 못함. 항상 수익사업으로 인해 기타 사업에 장애가 올 정도.

시민들과의 갈등 : 전혀 없음.

선거 출마 : 없음.

정보 통신 교류 : 의의에 동의. 현실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대상이 주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임.

조사원 한마디 : 돌아다니는 곳 중에서 최근 회원이 늘어나는 추세인 유일한 단체. 인터뷰 도중에도 앞치마 차림으로 오실 정도로 바쁘게 활동하는 단체. 주부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아기가기한 많은 회원관리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

10.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

위치. 사무실 환경 분위기

중구 장충동 1가 여성평화의 집 3층

여성의 전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간사라는 명칭보다는 상근회원이라고 한다.

1. 한국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이며 여성의 근본적인 삶의 지향 즉 인간다운 올바른 삶을 지향하는 인권 회원단체라고 할수 있다. 상담은 하나의 창구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기구적 성격이 아주 강했다. 그래서 원장도 있었는데, 87년도를 기점으로 회원단체로서 뿌리를 내렸다. 즉 초기에 비해서 회원의 자율성(참여도)가 변화되고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회원의 의견수렴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2. 교육은 끊임없이 합니다. 신입교육, 정교육, 다시 소모임별 교육(문화.춤. 영화...) 그리고 재교육 다시 단계별 부속교육 한국여성의 전화는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3. 여성의 전화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약하기 때문에 후원에서 가장 나중으로 뒷전으로 미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장애인을 도우면 사회적으로 평판이라도 좋아하지만 여성운동단체에 후원금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 생생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재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수첩을 만든다든지 이벤트(문화) 바자회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 회원과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에 기초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임강화를 통한 '여성의 전화'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이 연계를 위한 교육부분의 강화는 곧 소모임강화로 나갈수 이며 여성의 전화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5. 여성의 전화는 공개강좌를 통해서 일반시민들과 만나고 있고, 또한 일반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운동단체에 대해서 두려하거나 다른사람들이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결려전화도 많이 오고 우호적이며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특히 가정폭력법제정이후 어디에 가든지 더욱 우호적으로 변했다.
 6. 일반시민들이 공공관심사에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층별로 다르다고 생각하다. 가끔 전업주부들에게 강의를 나가보면 이기적이라기보다 공공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부재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부재한 여성들은 인식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부습성상 용기가 부족해서 어지 부분적으로는 지짓한다라고 생가한다. 절대로 방관자는 아니다.
 7. 87년도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직장여성분과가 있어서 해고문제 등으로 노조랑 관계를 가졌지만 87년이후에는 민우회쪽으로 넘겼다. 87년이전에 파리는행성폭력사건도 여성의 전화가 연계를 맺었던 ~~사건이다.~~
 8. 최근 정보민주주의가 운동조직에 많은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전화는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있고 정보담당상근회원을 두어서 국내외 연계망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작년 봄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운동단체는 각나라의 정보를 각나라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우리도 빨리 정보구축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
- 여연과 LAN을 구축하고 있고, 각 지역 여성의 전화와 정보통신구축망을 설정하고 있다. 만약

운동단체끼리 별도의 통신망을 구성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9. 여성의 입장에서 가사노동과 병행하는 것이 전업활동가로서 감정적부담이 크고 힘들다. 남편과 똑같이 누워 있었도 밥을 해야 하는 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은 짜장면이다.”라고 이야기 해놓고도 감정적으로 그래도 밥은 해야 되는데 라고, 항상 감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나이탓일까?

10. 대부분의 운동단체는 대표와 실제로 일하는 사람과 일치한다. 우리단체는 활동가 중심으로 움직인다. 회원들보다 상근회원들이 그래도 중심이지만 점점 폭을 넓힐 생각이고, 우리는 간부도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회원들이 차근차근 올라오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대표와 일하는 사람과 다른 단체가 있다면 별로 옳지 않다.

11.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중에서 선거에 출마한다면, 그것은 자기 훈련을 쌓는 기반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계속 제도권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단체에도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분들이 많이 있다. 정희경, 김희선, 유승희 등등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단체의 경험을 통해 더욱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회원의사결정과정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안에 있어서는 뽀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

1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하 전여농)

1. 현장 여성농민들의 자발적조직이며 단일조직이다. 각 군단위까지 전여농에 가입해 있다. 조직의 초기에는 농민운동의 내용틀안에서 여성이 실천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여성농민운동의 독자적 내용을 확보하고, 운동영역도 확보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2. 특별하게 운영하는 회원프로그램은 없다. 각 군 농민회가 담당하고 전여농은 간부나 회장단 교육, 활동가 토론회 등등 개최한다.

3. 주로 회비에 대해서는 서울쪽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쪽의 인간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인맥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에는 여성농민회망의 자리라고 주점을 통해서 재정사업을 했는데 보통은 양말 메주팜매 꽃감판매를 통한 예산을 확보한다.

4. 회원의 관리는 일상적으로 회의하고 각 군 도지부를 방문하는 정도이다.

5. 일반시민들과는 군교육 행사 등에서 만나고, 2년마다 여성농민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일반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반시민들이 전여농을 보는 시각은 여성농민회라기보다는 농민회의 하나쯤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무언가 새로운 앞서가는 여성농민으로 인식하거나 여성농민이 애쓰다라는 분위기다.

7. 일반시민은 공공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지, 공공에는 관심이 많다. '농협조합장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농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 지 동네가 떠들석하다.

8.정보민주주의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필요하건도 글세. 만약 운동단체가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한다면 참여해야 겠지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면 힘들고 비용이 중요하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우선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중첩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9. 전업활동가로서 가장 힘든 것은 생계문제가 어렵다. 빚으로 산다. 활동비 출장비가 거의 없다.

10. 명망있는 활동가가 대표를 맡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사람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우리사회의 거품이다. '농민회'는 현장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대표로 계시고 '농민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

11. 전여농에서 선거에 참여하신 분(전 사무국장 고은실: 비례대표제)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특별한 연계는 없다. 필요하면 협력한다.

12. 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1. 여성대중단체이며 주부와 사무직 전문여성들이 자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초기 100명에서 지금의 4000명으로 회원규모등 모든 것이 확대되었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초기에는 서울에만 있었던 것이 지금은 지방까지도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다.

2. 민우회는 회원교육프로그램으로 숙박교육을 하고 있다. 참여식교육이다. 본인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근간사가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사회도 보고 프로그램도 이끌어 간다.

3.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이 든다. 다른 남자단체들은 뭉터기 돈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우리는 큰돈이 안들어오고 회원들이 회비와 봄/가을에하는 재정사업으로 산다. 봄/가을에 하는 재정사업은 봄에는 딸기잼만들기 가을에는 유자차 만들기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딸기잼을 상근간사들이 숙박을 해가며 만들어 생협을 통해 판매하고 그 돈으로 예산을 확보한다. 이 봄/가을 재정사업은 89년부터 즉 해온 사업이다.

4. 회원관리는 주부들은 생협을 통해 한다. 조직적으로 민우회가 있고 3-5인 정도로 구성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개개인을 만나는 형식으로 회원관리를 하고 있다.

노동센터는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위원들이 활동을 한다. 거미줄처럼 잘 조직되어 있다. 민우회는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는 조직이다.

5. 주로 일반시민들은 생협을 통해 만나고 있다. 일상적인 먹거리로 민우회는 일반시민들과 만난다. 요즘 '여성우선해고문제'반대운동을 하는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항상 민우회는 대중성을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담소, 지회(어린이, 어른대상)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일반시민이 민우회에 대해서는 우호적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성은 우호적인데 남성들은 비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전화도 왔었다.

일반시민이 공공관심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점점 더해진다. 사회가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다. 바로 단체가 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6. 개인적으로 외부기관과의 연대활동에서 가장 기억남는 것은 96년도 노개위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여성보호조항폐지(생리휴가폐지)가 있었는데 민우회와 여성단체들의 압력으로 관심이 없었던 노총과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토론'으로 이끌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7. 민우회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많이 한다. 그런데 노조내에서도 민우회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 노조내의 여성간부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적다는 것은 노조정책반영에 있어서 여성사안은 뒤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남녀고용평등법, 분리호봉체제 등은 민우회에 협조아래 노조와 연대한 사항이다. 노조내의 여성간부들이 민우회 때문에 여성목소리를 독자적으로 노조내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지지 지원연대가 필요한데 그것을 민우회가 한다.

8. 정보민주주의가 운동단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자료를 뽑기에 좋다. 통신내에 운동으로 기존 토론회를 하면 50명정도 모였던 것이 대규모 인원으로 토론을 할 수가 있다. 장소이동도 안하고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정보민주주의를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운동단체들끼리 별도의 통신망을 구성한다면 필요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별로다. 운동이 다양화 되고, 전문화되어서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힘들다. 예를 들어 민우회도 인터넷을 하는데, 민우회안에서도 모아서 정보를 처리하기도 힘들다.

9. 전업활동가로써 생활의 여유 시간적 여유가 없다. 7시에 출근하고 12시에 퇴근한다. 너무나 피곤하다. 일에서 주는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집에 가면 폭 쓰러져 잔다.

10. 운동단체에 명망있는 대표가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우회는 대표자가 직접 활동을 한다. 또한 명망있는 사람이 대표를 할 경우 책임성의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많다.

11. 최근 운동단체 내에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런 것을 느낄때도 있다. 분명 대표자가 권한을 가질 부분도 있지만 일상적인(상근자)의 의견도 반영 수렴되어야 한다. 대표자가 자신의 구상대로 밀어 붙이는 경우는 열받는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많은 것은 아니다.

13. 가톨릭여성연합회

1. 가톨릭신자로 구성되어있다. 초기에는 가톨릭신자면 누구나가 가입을 했지만 지금은 각 성당대표(여성)이 참여한다. 조직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4년전 비용만 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소식같은 것을 발간하지 않는다. 평화신문이나 주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한다.

3. 회원관리는 각성당에서 한다.

4. 여협산하조직이며 국제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아태지역 가톨릭 여성연합회 이사국으로 있다. 4년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총회속에서 각국의 상황을 알리고 총회결정내용을 각국에서 실현한다. 올 5월에는 가톨릭 여성기념행사. 기도회를 한다.

5. 정보민주주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교구에서 하고 있다. 가톨릭여성연합회는 열사무실(남성평신도회)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6. 사무실은 책임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업활동가로써 가정일에 소홀한 것이 어려움이다.

7. 우리대표(박애주)는 함께 활동하고 활동을 총괄하고 함께 결정한다.

또한 의사결정과정도 매월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 결정하는 일은 없다.

14.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운동단체가 아니며 설문문항과 협회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계속 설문 거절\

실제로도 응답문항과 대한 간호사협회와 맞지 않는 점이 많이 발견

1. 16개 시도 간호사회를 총괄하는 중앙조직이며 8개 (임상.보건.마취.보험심사.가정간호사.양호.산업.보건자료)개 분야별 산하단체로 조직되어있다. 설립초기와 현재와 별 차이없다.

2. 회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보수교육(전문직종사들에게 새로운 정보에 대한 주기위해 교육) 강사교육(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공육)등을 하며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을 하고

있다.- 따로 출판부가 있고 건물 1층은 직영하는 책 파는 장소가 있다.

3.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별 문제 없다.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대한간호협회 BBS: 통신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간협수첩. 신문 잡지를 통한 정보 -> 회원확보-> 회비를 통해 협회가 유지하기 때문에 회원확보가 중요하다.

4. 회원관리는 전화되어 있다. 13만정도회원들의 신상명세가 PC로 관리되고 있다. -따로 전산실이 존재한다.

5. 비정치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정우회라고 다른 단체 있어 거기서 담당한다.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월 30일, 양미강 총무

1. 정대협은 24개 여성단체의 협의체인만큼 회원조직의 활동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친다. 실행위원회 밑에 11개의 위원회가 있다. 할머니 복지위원회, 기획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이 있다.

2. 그러나 11개 위원회가 모두 활발히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며 위의 4개 정도의 위원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4. 정대협은 크게는 국제단체와의 활동, 대일본정부 활동에서부터 할머니들의 장례식문제까지 관할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한다.

3. 정신대라는 문제자체가 한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대협의 활동 역시 국제단체와의 연대활동이 많은 편이다.

4. 국내단체와의 연대는 24개 회원단체와 그외의 정신대문제에 관심있는 단체들과 이루어진다. 그러한 단체들로는 경실련, 민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한국노총,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있다.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나눔의 집과 연대한다. 동독여대는 여성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정대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5. 국외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은 대만, 필리핀, 일본단체들과의 아시아연대회의가 있으며, UN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국제단체들도 있다.

6.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정대협 역시 상근자가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자주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대상자도 정대협에서 활동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대협 초창기부터의 활동맥락에 대해 다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였다.

16.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1998. 2. 17 사무실)

1. 소비자 문제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 계층별 교육, 상담, 소비자정책 로비활동, 홍보·출판하는 시민단체이다.

2. 설립초기와 비교하였을 때 지부가 5개 새로 만들어졌다.

3. 소식지로 격월로 「시민의 모임」이 있으며 회원용이고 무가지 이다.

4. 회원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소비자 보호법, 위생법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단체의 특별한 점은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사, 소비자 상담사등 대학교 수강과목의 실습장소이다.

5. 예산확보는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의 가입 부족이 어려움이다.

6. 회원들의 관리는 사안별 홍보와 행사시 연락과 동참을 권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7. 이 단체 특성상 수시로 시민들의 전화상담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과의 접촉은 자연스

롭게 이루어지며 공청회 세미나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8. 연대활동은 소비자 보호 단체와 금모으기, 쓰레기 문제로 연대활동을 하였으며 노동운동 단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의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17. 한국여성정치 연구소 (1998. 2. 11 사무실)

1. 여성정치의 참여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시민운동단체이다.
2. 소식지로 계간지 「한국여성정치연구」가 있으며 회원용이고 무가지이다.
또한 <Femi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3.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연2회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이 있고 지방선거 직전 2-3회 선거운동 전략을 교육하는 캠페인 스쿨이 있다.
4. 이 단체는 회원단체가 아니므로 회비에 의존하는 재정확보는 어렵고 또한 고정적인 후원금이 없어 힘들다. 연구단체의 특성으로 프로젝트에 의해 예산을 확보한다.
5. 회원들의 관리는 사안별 홍보 행사시 연락 소식지 발송 교육프로그램 운영등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사이트가 유효하다.
6. 이 단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부백일장 정보사냥등을 개최하여 일반시민들과 만나고 있으며 또한 <여성정치 상담실>를 운영하여 일반시민이 아닌 정치에 관심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접촉한다. 또한 이 단체는 여성정치에 관심있는 분과 상대하기 때문인지 시민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이 공공사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사를 표출할 경로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 이 단체는 ①할당제를 위한 여성연대-모든 여성단체 80여개: 공공부문의 여성 일정 비율 할당제 도입 ②공공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시민단체 40-50여개: 선거법 개정, 공명선거 등 ③시민운동단체 협의회-55개 단체(상시적 연대): 대정부 연대 활동을 하였다. 노동단체와는 연대하지 않았으나 시민협 소속으로 한국노총과 연대한적이 있다.
8. 이 단체는 현재 정보 통신 활성화를 위한 <전자 민주주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페미넷>에 가상정당이 만들어져 있다. 이 단체는 정보민주주의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94년 이후로 운동단체들의 통신망 <열린정책회의>라는 시민단체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18.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1998. 2. 3. 사무실)

1. 국내 유일한 여성노동부문 전국조직으로 '92년 설립초기에 전국 6개 지부를 가지고 시작 현재도 같은 6개 지부이지만 지역이 바뀌었다. '95년 사단법인화 됨.
2. 회원용으로 「일하는 여성」이 있고 국제 단체용으로 「Working Woman」이 있다.
3. 회원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여노회 중간 지도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년 1회 여성학교를 개설하고, 각 지역의 평등의 전화 상담원을 대상으로 년 2회 평등의 전화 상담 교육 개설.
4. 예산확보시 정부의 지원금이 전혀 없었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97년 정부 지원을 얻게 되었지만 매우 약소하고 또한 행정·세무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5. 회원들의 관리는 후원자에게 년 4회 정도 소식지 「일하는 여성」을 발송하고, 각 지역 대표자들은 격요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의 경우 과제별 취미별 소모임이 있다.
6.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복지회관, 어린이 집, 어머니 교실등의 운영으로 접촉하고 있다. 여성 지도자 보다는 여성 간부에게 잘 알려져 있고, 여성 간부의 경우 이 단체에 우호적이다.

7.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높지만 교육·언론이 민주주의 훈련의 토대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참여·비판·질서등의 실행에는 낮은 것으로 본다.

8. 연대사례는 단체용 설문지에 기입되어 있음.

이 단체의 전신인 전노협 때부터 노동운동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교육·3·8행사등 공동주최,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대위 등 연대활동을 하였다.

9. 이 단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E-Mail 이 30-50%를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의 특수한 도구적 성격으로 활발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실험적 단계이고 on-line 상에서 off-line 상으로 운동이 이어질지 의심스럽다. 현재로서는 컴퓨터는 도구적 역할밖에 하지 못하며 따라서 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도 회의적이다. 하자민 적극적으로 이용할 생각이다.

19. 참고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1998년 2월 11일 사무실)

1. 이 단체(중앙)의 특성은 전국에 15개 지부를 가진 지역 조직 형태로서 중앙과 지부가 연계하여 교육 정책 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다. 회원은 지부에서 관리하며 지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중앙은 회원 회비로 운영된다.

2. 단체 설립초기와 비교 하였을때 조직 형태가 크게 변한 것은 없다.

3. 이 단체는 월 1회 <학부모 신문>을 지부에 발간하며 신문 회비는 매년 2만원이다. 또한 지부마다 월 1회 소식지를 발간한다.

4. 이 단체는 중앙·지부 각각 학부모 교육 강좌를 개설하며 중앙은 비정기적 연속적으로 개설되고 지부는 월 1-4회 개설된다.

5. 이 단체는 재정을 전적으로 회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항상 부족하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회원 구성원의 주축이 주부라는 것이고 또한 정부의 프로젝트를 얻는데에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무공해 비누 팔기, 유자차 판매등-을 했으나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을 생각이다.

6. 이 단체는 교육당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지지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 나뉘어지고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회원가입을 꺼림.

7. 일반 시민의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관심과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계산적인 생각으로 직접 참여를 꺼리는 것 같다. 따라서 운동단체가 일방적인 희생·봉사를 요구하지 보다 경제적인 면을 떠난 이익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8. 연대활동은 단체설문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노동 단체를 포함)과의 사안별 연대는 성과가 크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컴퓨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국의 교육문제에 대한 사례, 민간 단체의 활동, 교육실태, 정책등의 정보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또한 단체 자체적으로 통신방을 갖고 싶지만 여건 마련이 어렵다. 만약에 운동단체가 함께하는 통신방을 개설할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20. 또하나의 문화(이하 또문)

특정한 개인을 대표로 내세운 기존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식직함을 가진사람은 간사뿐이 없다. 주요활동으로는 동인지 활동, 월례강좌, 소모임활동 등이 있고 설립초기와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회비를 잘 내고 있고, 책판매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원관리는 자료를 보내고 통신

들 통해 홍보하고 그 정도이다. 또문을 하는 사람들은 또문을 지식인단체 또는 여성운동단체로 평가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또문은 기존의 다른 운동단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설문의 내용을 가지고는 또문을 파악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따뜻한 온돌방에 위치한 단체다.

2. 환경운동단체

<지역산하단체>

21. 인천 환경운동연합

원주와는 반대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상근자들(총 4명)이 과거 민중운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워낙 현안이 많은 지역인데다가 이러한 구성원들의 경험들이 맞물려서 투쟁을 조직하거나 타 단체들과의 연대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 같다. 사무국장과 상근자들 사이의 나이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화기애애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위기였다.

22.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 모두가 여성이었다. 그런 탓인지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 권위적이고 참여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운동”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갖추어져 있었으며, 워낙 현안이 많은 지역인 탓인지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시민의 참여쪽 보다는 80년대적(???)인 투쟁, 비상대책 위원회, 연대회의 등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23. 부산 환경운동연합

상근자의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점이 첫 인상이었다. 즉, 사무국장 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다소 권위적인 사람이다), 중간 상근직원들은 20대 중후반의 젊은 층이었고(이들이 수적으로 대부분이다), 신입 활동가 2명은 20대 초반이었다. 활동가들끼리 하는 이야기 내용을 미루어 보건데, 이러한 나이의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의사소통의 괴리도 있을법 했다. (다시 말해서, 말이 통하는 나이끼리 주로 뭉친다는 거다. 당연하지 않은가.)

24. 대전 환경운동연합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조금씩 다른데,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경우에는 좌파적 성향이나 일정한 투쟁의 경험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무실 자체가 대전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시민들과의 괴리 극복이나 회원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25. 광주 환경운동연합

상근자는 7-8명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모두 아주 젊은 층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광주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나 참여도, 인식 수준도 높은 편이었고, 그에 대응하여 활동가들의 사고도 나이에 관계없이 개방되어있었다.

광역 도시 답게 회원의 수도 많은데, 이것에서 비롯되는 회원 관리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 환경운동연합과 비교해 보건데 그다지 대규모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 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여타 다른 지역의 환경운동연합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단일운동단체>

26. 부산 낙동강보존회의

1-1. 환경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 상근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비상근요원들이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전회원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사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

1-1. 조직형태는 크게 변한 부분이 없다. 조직이 처음 결성될때는 낙동강의 하구둑 건설사업의 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낙동강을 아끼는 향토시민들이 모여서 보호하려는 최초의 시민단체가 아니었나 한다. 그런데 조직을 계속 관리하고 운동을 심화시켜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을 못구했다. 그래서 현직의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민운동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데 우리조직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효율이 떨어지고 명맥만 남은 사정인데 그러나 낙동강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부산의 상근조직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경단체와 연대를 해서 인원동원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어서 그쪽에서 실행하는 형태이다. 자치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낙동강 보존에 관한 건의라든지 보존에 관한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다.

6-1.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7. 회원들 회비를 받고 있지만 일년에 만원씩 내는 회원들이 몇십명되지 않는다. 이사와 회장단들이 주로 매달 부담하고 있다. 최근 기업체들이 환경관련의 캠페인들을 통해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우리와 연대를 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기금이 오천만원 정도 마련했는데 그 돈의 이자를 통해서 그리고 광고협찬의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7-1.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있으면 상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

9. 회지를 보내서 그리고 회비납부를 독촉하고 행사참가를 유도하고 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회원들 관리이다.

9-1. 일년에 한두번씩 하는 낙동강 찾아보기운동과 낙동강 탐사회등과 강연회나 집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9-2. 관계는 우호적이다. 우리단체가 실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무슨일이 벌어질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를 하고 있으니까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시민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인식이 있다.

11-1. 연대활동의 경험은 없다. 노동운동단체와 꼭 연대를 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27. 환경과 공해 연구회

일반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전문적 정보 센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시민” 운동단체로서의 개방성이나 적극성은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다. 단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ex. 예산-결산 보고서) ‘대외비’라며 열람 및 유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의 우후죽순, 좌충우돌 식의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등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었고, 자기 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었다.

28. 녹색연합

29. 수원 환경운동센터

1-1.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수원의 모든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환경운동단체를 하나 만든 것인데 이런 형태는 전국에서 수원밖에 없다.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모두 센터에 모이도록 되어 있고 센터가 환경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모든 시민단체가 합심해서 현안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다.

1-1. 초기에는 모든 시민단체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개별적인 회원을 가지는 구조는 아니었는데 이후 회원프로그램을 운용하다가 회원의 필요성을 느껴 자체 회원을 두는 것을 정관에 넣어서 자체 회원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6-1. 회원의 연령과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교육(주부, 교사, 어린이 환경교육 등)프로그램을 연중에 한두번씩 시행하고 있다.

7. 시민운동단체는 대동소이하게 다 예산확보가 어렵다. 경상비는 자체조달(회원 회비와 운영위원 회비, 연구사업 수익금 등) 하고 있고 대외행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다.

7-1. 앞으로 예산에서 회원들의 회비부담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이다.

9. 일년에 서너차례 있는 회원 프로그램(생태기행 등)을 통한 회원참여라든지, 회원의 날 행사, 대외행사,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에 회원을 초대하는 방식이 있다. 또 회보를 발송해서 연락을 한다.

9-1. 지역환경현안의 경우 매체(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를 통해서 현안을 홍보하여 회원이나 일반시민을 만난다.

9-2. 전혀 갈등이 없다. 일반시민들은 환경문제가 자기문제와 직결되지 않는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자기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담이나 상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11-1. 연대활동의 경험은 없었다. 노동조합이나 작업현장은 환경의 다양한 조건 중에 최근에 중요시되는 현장인데 아직 우리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서로 접목해서 일을 활성화하고 상호인정하기에는 각기 개별적인 자기 영역의 일들이 너무 많거나 컸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계기는 못 찾았는데 앞으로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30. 그린웨이리온동연합

1-1. 환경이라는 측면과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는 측면을 접목시킨 형태이다.

1-1. 조직형태는 외형적으로 이름이 그린스카우트에서 작년 1월에 성인조직은 그린웨이리, 학생조직은 녹색소년단으로 바뀌었다. 기본적인 구조자체는 사실 그렇게 변한 것이 없다.

6-1.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회원에 대한 교육문제가 등한시되고 있다. 회원을 만나는 행사는 1년에 20여개가 되는 캠페인과 회원의 밤등이 있다.

7. 어려움이 많다. 우리의 재정확보는 회원비(개인당 7천원), 기업이나 환경부, 서울시의 협찬/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7-1. 회원단을 확장해서 단비를 늘리는 방식, 국민카드, 조흥은행의 그린스카우트통장, 그리고 데이콤과의 협조속에 일정한 환경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회원들과 녹색소년단의 부모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 또 연구나 프로젝트를 따는 방식이다.

9. 형식적으로 보면 엑셀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소식지 발송이나 행사안내등이다. 그

리고 작년말부터 회원들의 밤을 마련하고 있다.

9-1. 우리가 1년에 많은 캠페인(야생동물캠페인 등)을 하는데 전단을 뿌리고 피켓팅 등을 한다.

9-2.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운동조직이 평소 가지고 있는 과격성이나 고발성을 우리단체도 가지고 있지만 중심과제로 하지는 않고 환경교육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온화한 측면이 있다.

11-1. 연대활동의 경험은 없다. 우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운동성 때문에 그런 단체와 연대하여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려고 하나 우리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경우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1. 광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1-1. 광주지역에서는 무등산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등산이 신앙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57개의 사회단체가 모두 모여 있다. 이런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현상이다. 독특한 지역의 특성이 조직상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1-1. 처음에는 청소년사회단체들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형태였는데 그 뒤에는 자발적으로 57개의 사회단체들이 모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구심력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구심력은 없되 관심은 있었다. 협의체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동부담하는데 구심력이 없어지니 회비납부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운영이 어려워져서 환경대학을 통해서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개인회원을 만들어서 재정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은 700명 정도의 개인회원을 하고 있다.

6-1. 회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없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94년부터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 2개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나 환경활동가를 모셔서 무등산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발현황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대학의 경우는 현재 8기까지 수료생이 배출되어 있고 매 기마다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매번 인원을 초과하는 상황을 이룬다. 광주MBC, 광주광역시, 교육청, 환경청에서 후원하는 자라할 만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환경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7. 회원들이 분담하여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기껏해야 회원들이 내는 돈을 합해보면 천만원정도밖에 안된다. 처음에는 봄 가을에 일년에 두차례 범시민계도차원에서 환경대학을 운영했기 때문에 간사도 한명 정도밖에 필요치 않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쪽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문제, 특히 잘못된 개발의 복원, 정비, 연구쪽으로 전문화되다 보니까 사업과 모든 것이 점점 커져서 더욱 어렵게 되었다.

7-1. 무등산 보호재단을 설립하여 현지의 사유지를 공유화시키고 또 공유지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연구, 보호사업의 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재원확보는 시예산의 일부와 무등산 입장료, 기탁금, 청탁관리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9. 환경대학을 나온 그 사람들이 각분야별(환경구조대, 봉사대, 교원협의회, 여성환경회, 무등산야생회연구회등)로 소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100명씩 배출되므로 각 기수별 동창회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작년 12월에 총동창회가 결성되어 연합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은 환경대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회적이고 압력적인 역할은 참여하는 회원사회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9-1. 우리는 5만명이 출입하는 무등산의 등심사지구와 산장지구에서 유인물도 배포하고 홍보도 한다. 한달에 한벌꼴로 강좌와 포럼을 통해서 시민들과 접촉한다.

9-2. 광주지역의 상징적인 무등산을 보호하므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우호적이다. 행정이라든가 개발기업체와의 갈등이 있을뿐이다. 시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11. 무등산 중심의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부터 크게 같이 연대활동을 해왔던 사업들이 무등산 윤림온천 개발사업저지운동이 있는데 광주지역의 4개단체와 꾸준히 연대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사업승인이 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연대회의가 꾸준히 개발사업저지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호화빌라 개발저지 연대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광주시와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이례적으로 벌여 공무원에 대한 인책까지 하기에 이른 큰 성과가 있는 연대사업이었다.

11-1. 연대활동의 경험이 있다. 노동단체라고 해서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남충련이 조선대 총학생과는 달리 어떤 선입관념도 없이 광주시민 누구하고나 무등산을 보호하겠다는 단체와는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32. 한국 불교환경교육원

상근자 3명. 사무실도 가정집의 작은 방에 있었고, 나머지 방은 불교 관련 여러 단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식사를 자체 해결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족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았고, 이는 '불교'라는 종교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종교적 제한이나 인력/경제력의 한계가 너무 커서 재정 충당을 위한 프로젝트나 외부 활동이 지나치게 많아 보였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경험이 있다면, 상근자 중 여성 한명이 단체 내의 성차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다. 물론 폭력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업무의 성별 분업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는 남성 상근자들의 개인적 인격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녀가 판단하기에 다른 사회 운동 단체에서도 (여성운동 단체가 아닌 이상) 비슷한 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 역시 의외였다.

33. 생명가치를찾는민초들의모임

1-1. 생명을 화두로 해서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라고 성격규정을 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메시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는 행정구역상으로 기초나 광역에 관계없이 지방의 생명민회를 다양한 이름으로 조직해서 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타 단체와는 달리 회원규정이 없이 자발적인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곧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태의 단체이다.

1-1. 일단 우리단체는 조직체계가 없고 대표도 없다. 설립초기에는 상근자가 전혀 없었고 네트워크에 열심히 참여했던 한 단체(불교환경교육원)의 상근자 한명이 연락간사 역할을 하였다. 95년 10월부터 상근직원 1명이 근무하였고 작년에는 간사 1명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6-1. 특별한 회원교육프로그램은 없다. 비정기적으로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하지 않았다.

7. 개인의 후원금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올해부터는 후원금이 끊어져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졌다.

7-1. 전적으로 그물코 독자와 적은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들을 많이 찾아야 하는 것이 올해의 예산확보 계획이다.

9. 사무국장이 지역에 방문하여 지역의 구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사실 1년에 '그물코' 회지 6권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단체는 회원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과 단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을 꽃피웠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9-1.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상반기에 2개월에 걸쳐서 하였다. 피시통신과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일반시민을 만나는 다른 방식이 없다.

9-2.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한다. 호기심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는 식이다.

11-1. 연대활동의 경험은 없으나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 생명의 세계관이나 생명사상에서 노동을 보았을 때 노동은 생명과정의 일부분이다. 지금 현재로는 노동은 경제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는 삶의 도구라는 생각의 틀이 있다. 생명과정으로서의 노동의 의미라는 본래적인 의미를 살려내려면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운동이 단위 사업장 중심이거나 노동자 내부적인 요구의 쟁취로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지역자치와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

3. 인권운동단체

<협의체>

34.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1994. 9.

(1) 조직특성

- 소속단체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기독교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유가협, 민주법연, 전국연합인권위(이상 1994년 가입),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고난함께)(997년 가입)

- 참관단체

「인권지기」 (광주)

(2) 조직형태상의 변화

- 소속단체 중 한 단체가 간사단체가 되어 운영하며, 1998년은 민변이 간사단체 임.

(3) 회비 운영

- 각 사안별로 회비를 따로 수집하여 활동에 사용. 사안에 따라 단체사정을 감안하여 회비를 걷음

(4) 대표자나 임원의 정계진출 - 천정배 변호사(국민회의)

(5) 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의견 - 매달 1회 집행위원회, 각 단체의 집행책임자와 실무자들이 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함. (문제없음)

35. 낙태반대운동연합 - 1994. 4.

(1) 조직특성

- 소속단체

기윤실, 누가회(CMF), 라브리목산교회, 새생명사랑회, 생명을아끼는모임, IVF학사회, 예수원, 한국기독교의사회, 대한기독교의사회, 대한기독교간호사회,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가족목회연구원, 경실련기독교청년학생협의회, 다일공동체, 복음주의목회연구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학생성경읽기(UBF), 학생신앙운동(SFC),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예영커뮤니케이션, 나팔소리선교회

가입단체는 23개단체이지만 10개 단체가 실질적인 활동에 관여한다. 낙태반대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규모가 작아서 1994년에 연합체를 만듦.

(2) 조직활동

- 회지는 계간지로 생명지기가 있고, 월간 낙반연 소식지가 있다. 이 소식지는 회원교육용이며 회지, 소식지 모두 무가지이다.

-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세미나가 있고, 지원자가 있을 경우 강사육성 프로그램이 있다. 낙태반대를 무조건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있는 운동을 위해 미혼모 기관, 장애아 문제, 인간

복지문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 예산확보는 기본적으로 회원회비와 후원교회의 회비로 이루어진다.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부족하지만 사안마다 따로 홍보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기 때문에 활동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는 아님.

- 현재 회원 500여명이고, 후원회는 50여명이다. 회원관리에 특별한 방법은 없고 활동가 개인이 강의나 강좌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일반시민에 대한 접촉은 1년에 두 번 정도의 거리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강의나 대학축제, 지자체 방문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 일반 시민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페미니스트)

(3) 연대활동

- 협의체내 단체와 보건소, 가족계획협회와 하고 있다. 노동운동 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없다.

(4) 정보민주주의

- 1998년 2월에 인터넷을 개설할 계획 (일반홍보용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임)

<산하단체>

36.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37.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단일운동단체>

3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1988. 5.

(1) 조직특성

- 인의협과의 비교도 흥미로울 것이다.

- 민변의 성격: 법률전문가단체, 변호사단체, 인권단체, 사회운동단체 (80년대 사회운동의 결실)

- 민변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일반 시민사회단체와의 수평적 비교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체 외부의 지원이 없이 회비만으로 운영되며, 회비 납부율이 90% 이상이다.

- 조직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거 비상근의 사무국장과 나이 많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으나(회원 50명), 최근에는 그 수도 설립초기보다 네배이상 증가하였고 활동도 젊은 층의 변호사 중심으로 바뀌었다.

(2) 조직활동

- 회원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회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회원교육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민변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참여연대는 회비납부율이 30%에 머물고 있지만 회원의 참여율은 민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에 민변도 조직관리 system을 동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민변산하에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사무국장이 반상근을 하고 6명의 간사가 있으며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다.

- 회원교육에 관련하여, 변호사라는 직업적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률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회원간의 이질성이 보이는 하지만 회원스스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민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으로 참여봉사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배 변호사들의 경험을 부정기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조영래/황인철/홍성우 변호사)

- 재정확보의 큰 소스는 기부와 회비이지만 대체로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 소식지 「이 달의 민변」(판매용), 주간 <민변소식>

(3) 연대활동

- 97년에는 공선협에서 탈퇴하였다. 연대활동에 있어서 다층위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체차원에서의 참여인가 아니면 변호사 개인차원에서의 참여인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참여도 또한 민변에의 소속감에서 다양한 이슈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진보적인 운동단체에 개인적으로 중복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국연합 인권위 전원이 민변소속 변호사이며, 성폭력상담소의 70%가 민변소속이다.

- 재야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자연스럽다. 노동, 인권운동단체에 대해 주로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나 아직까지는 법률운동(예: 악법철폐운동)에 머물고 있다. 민변의 연대활동의 필요성 이는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응할 수 없기에 각 분야(사회복지, 경제정의, 노동인권 등)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을 섭렵하는 법률가는 드물기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연대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변은 운동참여에 있어서 겸손해야 할 것이다.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대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면 이것이 신사회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 과거 소극적인 자세로 독자적인 활동에 주력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슈의 다양성으로 인해 연대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예컨대, 소위 '공대위'가 생기면 의례 참가하는 것으로 되었고, 참여연대와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실련과도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협에 소속되어 있기에 상시적인 연대활동을 하며, 97년에 상층적인 연대의 하나인 민주연대와 재야운동단체(전국연합, 민주노총)와의 다양한 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4) 정보민주주의

-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보화 접근, 아직도 폐쇄적이다.

(5) 시민사회운동 일반

- 특히 이슈과이팅적 전략과 관련하여 운동단체들의 책임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싶다. 언론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나친 언론 의존적인 운동은 운동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운동단체 스스로 금기시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스스로 토론을 통하여 언론과의 이중적 관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성적인 자세로 활동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39.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1974. 9.

(1) 조직특성

- 대표, 총무, 위원장, 사무국(장)/간사-2인

- 1974년 9월 '사회정의구현'의 슬로건하에 설립. 지학순 주교 연행에 반대운동, 지금까지 조직형태가 크게 변한 것은 없다.

- 회원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기 보다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공간이다.

(2) 조직활동

- 「빛두레」 주보는 신자, 수도자를 대상으로 배포하며 무가지이며 대외용이다. 사업을 통해 일반 사람들을 만난다. 예컨대, 복녘 동포돕기운동
- 예산은 지역사제단의 분담금, 임원들의 분담금, 후원금으로 확보되며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통일, 남북관계, 인권 등에 대한 교육강좌가 있으며, 또한 양심수 석방기도회, 통일염원미사 등이 있다.

(3) 연대활동

- 종교인 협의회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상시적인 연대를 하고 다른 단체들과는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한다. 사실 '연대'라고 하여 특별한 것보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정도이다.

(4) 정보민주주의

- '빛두레'라는 별도의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다. 즉 정의구현사제단; 천리안 가톨릭 동우회 안에 32번방 1번에 해당된다. 별도의 통신망은 편리하면서 단체들간의 정보교환에 도움이 됨

40.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 1993. 10.

(1) 조직특성

- 21개 단체의 연합체 형식이다. 대표자회의-공동대표-실행위원회(/법률자문단)-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992년 10월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상설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대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993년 10월 26일에 발족하였다.
- 초기에는 참관단체를 포함하여 24개 단체였으나 현재는 여성의전화와 여신학자협의회가 빠짐. 회원단체의 가입/탈퇴는 탈퇴의견을 밝힐 경우, 대표자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열려있음. 대표자 회의는 단체책임자들이 1년에 2번한다. 회원단체로 가입할 경우에는 분담금을 낸다.

(2) 조직활동

- '민족의 자존을 다시찾는 작은 불씨' '운동본부소식'이라는 소식지가 격월간으로 발간되며 이는 회원용으로 무가지이다.
- 교육프로그램은 회원단체가 결합하여 운영한다. 회원단체에서 교육을 제기할 경우, 회칙에 따라 사무국직원이 교양, 홍보를 한다. 또한 매주 금요일집회에서 회원단체가 참가한다.
- 재정에서 회비는 약 20%를 차지, 회원단체에 회비분담금을 가중하여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 재정충당문제가 심각하다. 기획사업을 추진하지만 인원이 부족함, 자료판매(책자/비디오 등)를 시도하기도 함.
- 회원관리는 자료와 책자를 발송하는 수준이며, 후원회의 식사모임은 1년에 한번정도 있음.
- 일반시민을 만나는 방식은 홍보활동과 매주 금요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금요일집회를 통해 알림

(3) 연대활동

- 사안에 따라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단체는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

(4) 정보민주주의

- 현실운동에서는 정보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인원이나 재정이 모두 필요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41. 인권운동사랑방 - 1993. 3 (1995년 분리)

(1) 조직특성

- 일반회원조직이 없음. 상근활동가 조직임. 소프트웨어적 조직으로 기동성이 있음.
- 설립초기와 비교해 보면, 상근자 조직에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생겨났고, 자원봉사자들이 결합되었다. 또한 별도 조직이기는 하지만 인권영화제 조직위, 집행위원회, 후원회가 있다.

(2) 조직활동

- 「인권하루소식」(주 5일, 팩스신문, 유가지, 대외용)과 「사람사랑」(월1회, 회원용, 무가지)
- 예산문제는 수익이 현상유지 정도이며,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자립이라는 원칙은 지키려고 한다.
- 회원관리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회원소식지(사람사랑)를 발송한다.
- 일반시민과의 만남은 팩스나 통신, 그리고 인권영화제를 통해서이다.

(3) 연대활동

-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많은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인권협'이나 '과거청산국민위'와의 활동이 많았다.
- 노동운동 부문과는 인권탄압과 관련된 해고자 복직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회복은 인권운동의 당연한 임무이다.

(4) 정보민주주의

- 도움이 되는 반면에 정보의 독점적 지배가 역으로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간의 연대도 중요한 문제이다.

42. 전주교인권위원회

43. 불교인권위원회 (1998. 2. 13 사무실)

1. 불교단체중 유일한 인권 관련 단체이다.
2. 설립초기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설립초기 규모는 단체용 설문지에 있음)
3. 소식지로 주간지 「인권지」가 있으며 회원용이고 무가지 이다.
특별히 이 단체는 수익사업으로 출판사업을 운영하며, 인권관련서적을 출판한다. 동국대 법학과 한상범 교수의 「인권문제」, 그밖의 스님들의 시집들을 출판하였다.
4. 회원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연1회씩 '인권학교'를 개설하여 인권과 불교사상을 강좌한다. 1회 참여인원은 20명 정도이다. 또한 사안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5. 예산확보는 스님들의 회사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경로-이벤트 사업, 출판사업, 회원의 활성화-를 통해 예산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6. 회원들의 관리는 사안별 홍보와 행사시 연락과 동참을 권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7. 이 단체는 인권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철거민, 학생, 종교인 등-의 상담전화가 많다. 따라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들의 운동단체에 대한 의식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번 정권 교체 이후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단체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인지 시민들과의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 시민들이 공공사에 무관심 해진다는 것은 어려서부터의 사회성에 대한 교육-시민의식과 같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8. (단체의 연대활동은 단체용 설문지에 자세히 기입되어 있음)
 9. 노동자 탄압 문제에 대해서 한국통신 노조와 전국 지하철 협의회(지하철·철도청 노조)와 연대하였으며 사안별 연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10. 컴퓨터 통신을 통한 운동은 정보를 수시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잇점 때문에 운동에 도움이 될것이고, 통신망 구축도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개설이 된다면 참여하겠다.

44. 노동인권회관 - 1989

(1) 조직특성

- 노동인권회관은 조영래 변호사와 권인숙씨가 1989년에 설립한 것으로 과거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자 개인의 상담에 주력하는 상담소 체제로 바뀌었다. 특히 1995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정부나 사용자의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노동연대보다는 부문별 인권상황에 주목하게 되었다. 탄압의 수준에서 이슈의 수준으로 초점을 바꾸었다. 과거 연대활동 중심의 타단체와의 '관계'(relation)로부터 이제는 '수준'의 문제에서 사안별로 대처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이제는 법률지원이나 상담소차원의 활동으로 바뀌었다. 사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맥을 같이하며 조직활동이 주로 소장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현실적으로도 상담소 차원의 노동자에 대한 상담의 질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지 운동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인권회관이 과거에는 구로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해고노동자 문제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지원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94년이후 사단법인화하면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상담소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2) 조직활동

- 재정동원과 회원 : 인적 물적 자원이 자체의 회비나 상담소운영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이사들의 기부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기독교사회발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 조직은 현재 상담소에 상근노무사, 그리고 연구소 간사와 소장이 전부이다. 과거에는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상근하였다.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이념지향이 수그러들면서 활동의 폭이 축소되었다. 현재는 이슈에 따라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 수준이며 외부 강의에 주력하고 있다. 재정동원은 상담소 운영과 소장 개인적인 연줄 및 이사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3) 연대활동

- 단체대 단체간의 연대활동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역량이 되지 않으면 가급적 피하고 있는

- 상태이다. 상담소 운영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재정도 최소한의 운영비로 운영될 것이다.
- 인권부문(종교, 법률, 노동 등)에 대한 연대활동은 단체간의 연대활동 보다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노무상담에 한정될 것이다.
 - 노동부문의 인권은 따라서 인권단체협의회나 재야운동단체 즉 구사회운동부문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45. 장기수가족후원회

(1) 조직특성

- 명망가 중심이 아닌, 운영위원회 중심 활동, 회원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상근자가 많이 없음
- 초기와 비교해서 규모가 커졌으며, 조직의 변화는 없음
- 이 단체는 천주교 대표가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실질적인 일은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음.

(2) 조직활동

- 소식지 「평화일꾼」 (회원용, 대외용/ 무가지)
-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없으나 출소 장기수와 회원의 만남을 위 1회 산행에서 가짐(년 2회 기행)
- 재정은 회비에 100% 의존하므로 회원규모에 따라 변한다. 현재는 IMF의 영향을 크게 받음
- 98년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1일 주점'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임
- 회원관리는 소식지 발송, 행사 홍보,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한다.
- 일반시민과의 만남은 회원들의 일상적 만남으로 가능해 진다.

(3) 연대활동

- <천정련>의 위원회 자격으로 같이 행사를 치름(인적/물적 교류), 만가협과의 연대활동

46.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47. 북한인권개선 운동본부 (1998. 2. 17. 사무실)

1. 특성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설립초기와 비교하였을 때 규모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활동 내용면-외국 인권 단체와 연대활동-에서 커졌다.(외국 인권단체와의 연대의 내용은 자료 「국제 인권보」 월간지에 나와 있음)
2. 소식지로 월간지 「국제인권보」가 있으며 대외용이고 무가지 이다.
(북한인권운동본부와 국제인권옹호연맹과 연합발행)
3. 회원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4. 예산확보는 총재 1인의 회사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이 빠듯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다.
5. 회원들의 관리는 이사회, 정기총회 시마다 연락을 취한다.
6. 일반시민과의 접촉은 '인권보'로 홍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민들과의 관계는 이북5도민은 우호적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무관심하다. 그러나 갈등적이지는 않다. 일반시민들은 공공사에 대해 자신과 연관된 부분에서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7. (단체의 연대활동은 단체용 설문지에 기록되어 있음)
8.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단체와 연대 활동한적이 없으며, 단체 특성상 연대의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한다

9. 컴퓨터 네트워크의 장점을 인정하며 현재는 재정적·인적 자원 문제로 개설을 못하고 있지만 예산만 확보된다면 참여할 것이다.

10. 이 단체는 총재는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실질사업은 사무총장이 맡고 있고 사무직원들의 사업계획 후 승인단계를 거쳐 사업이 진행된다.

4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49. 가정법률상담소

4. 사회복지운동단체

<협의체, 연합체>

5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소 : (110-125)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5-1 서울은행 4층.

전화 : 766-5390.

연락 : 정선애 조직국장.

통신 : ccej (천리안).

방문 : 98. 1. 15. (1차), 98. 2. 16. (2차).

특기사항 : 2월 말에 이사할 예정이랍니다. 이사갈 곳은 정동문화회관 별관.

회원관리 : 과거 십여년 동안의 회원관리 체계에 큰 변화는 없음.

모든 회원들은 동일한 자격을 가짐 (일반회원, 후원회원 등의 구분 없음).

따라서, 과거 단 한차례 회비를 낸 사람도 현재 회원으로 등록됨.

즉, 회원관리가 그다지 엄격하지 못함.

이러한 방식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들 느끼고 있음. 특히 최근 단체의 정체성 문제가 터지면서 심각하게 사고 중.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시작되고 있지는 못함.

회원 교육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청회, 강연회 등과 수련회 등.

예산문제 : 보시다시피 개인 후원금이 과반수. 회원의 회비는 7% 정도.

프로젝트 형식으로 정부나 지방자치제, 외국기관 등에서 프로그램별 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

시민들과의 관계 : 보완 要.

선거 출마 : 조직적으로는 없음. 앞으로는 선거법 개정 등 긍정적으로 검토.

정보 통신 교류 : 보완 要.

조사원 한마디 : 무척 바쁜 단체임.

질문지의 형식에 많은 불만. 예산이나 회원관리, 연대의 문제에 있어 자신들의 분류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작성하기 어려웠다고 함. 하부 단체가 지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활동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 중앙조직으로서 경실련의 독자적인 활동을 크게 담기는 어려울 듯 함. 사무총장님의 개인질문지를 받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늘려 잡았지만, 결국 실 패함.

보완 인터뷰는 이사한 다음인 다음달 초 이후에나 갖자고 완곡한 의사.

51. 한국YMCA전국연맹

5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주소 : 이사했음. 보완 要.

전화 : 739-6851.

연락 : 총무부장.

통신 : PAC3 (나우)

방문 : 98. 1. 15. (1차), 98. 2. 2. (2차).

특기사항 : 작년 말 쯤 이사함. 근처 건물.

회원관리 : 예술인 중심의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관리가 무척 어려움. 회원을 중심으로 일반인

들에 대한 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아카데미 등)이 주 교육프로그램. 특별한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없음. 민족예술(정기간행물 정도).

예산문제 : 90년대 초 정부와의 관계가 변화되면서 조직의 정체성에 변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문제로 내부 갈등 있었음. 현재는 예산 혹은 정부 단체와의 연대 문제에 있어 사안별 논의는 되고 있지만 커다란 줄기를 잡아가는 그런 논의는 힘들 듯 함. 개인적인 견해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 현재는 잠복중인 상태.

시민들과의 관계 : 보완 要.

선거 출마 : 없음.

정보 통신 교류 : 유명무실한 상태. 만들어진다면 참여할 용의 있음.

조사원 한마디 : 처음 연락할 때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으나, 방문 후 많이 누그러짐. 조사를 담당하신 총무부장님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줌.

여타의 단체에 비해 정부지원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전체 예산이 작기 때문이라 여겨짐. 소소한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의 크기가 작아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53. 봉사단

54. 부산 장애인 총연합회.

주소 : (601-013) 부산 동구 초량3동 1151-8.

전화 : 464-0650.

연락 : 이복남 사무국장.

통신 : pjy0650(천리안), jang7968(하이텔).

방문 : 98. 2. 6.

회원관리 : 지도자 수련회, 장애인 복지대학(유형별 구성 : 언어발성교육/운전필기 등).

자원봉사자 교육. 소아 교육.

예산문제 : 시비가 30% 정도. 국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시민들과의 갈등 : 그다지 없음.

회보를 중심으로 한 시민후원과 임원들의 권유. 기업들의 참여 등.

선거 출마 : 없음.

정보 통신 교류 : 의의에 동의. 현실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55.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56.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주소 :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5 중앙상호신용금고 9층.

전화 : 514-2300.

연락 : 정탁영 사무총장.

통신 : ccmw (하이텔/천리안)

방문 : 98. 1. 20. (1차), 98. 2. 2. (2차).

특기사항 : 사회학과 정준영 선배의 친형.

회원관리 : 보완 要.

예산문제 : 보완 要.

시민들과의 갈등 : 보완 要.

선거 출마 : 없음.

정보 통신 교류 :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현재는 별로.

조사원 한마디 : 무척 오랜 시간 면담을 가졌는데, 조직 자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던 듯.

시민운동 단체 내의 언론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각 시민운동 단체의 현재 진실된 모습과 각종 부조리에 많은 관심을 보임. 일반인들의 편견에 불만.

실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과 현재 고민하는 일에 큰 차이가 있는 듯 함.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특히 시민운동 단체들 의 정부와의 관계 등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함.

강남구 논현동 빌딩에 입주해있는데, 내부 구조 역시 물질적으로는 상당한 여유를 갖는 단체라 여겨짐.

5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58. 생활협동중앙회

59. <수원 경실련>

, 1월 23일, 전영을 집행위원장, 노건형 간사

1. 경실련은 초기 지식인 중심에서 보통시민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회원 교육프로그램이나 친교모임을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시사성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허당을 여는 것이다. 비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양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2. 수원 경실련은 다른 지역 경실련에 비하면 체계적, 조직적이라고 생각한다. 특징적인 것은 정책위원회라는 연구그룹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그룹을 활성화시켜 사무국중심의 시민운동이 아니라 일반시민 중심의 시민운동이 되고자 한다.
3. 수원 경실련내에 경기지역 사회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보다 전문성 있는 운동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사단법인이며 이를 통해 경실련내에서 부족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 매주 월요일에는 시민상담을 한다. 법률, 세무, 부동산에 관한 상담을 주로 한다.
5. 과거의 시민운동은 항거적이었으나 지금은 대안적, 합리적 운동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로 조직내에서 논쟁이 일기도 한다. 어떤 성격의 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6. 환경운동단체, 흥사단, YMCA, YWCA, 시민의 전화, 여성의 전화 등,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주로 시민사회의 쟁점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부정, 부조리 문제 등이 중심이 된다.
주로 사안별 연대를 한다.
7. 민주협과는 통일문제를 가지고 연대한다. 적극적 재야단체라도 필요한 경우라 판단될 때에는 연대한다.
8. 수원시의 지방의제21제정에 우리팀이 일부 참여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지방정부쪽에 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9. 노동법 재개정 범대위에도 참여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화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 민노총 등과 연대했고, 민노총 초창기에는 회원으로도 참여했다.

60. <인천 경실련> ,1월 21일, 김승원 차장

1. YMCA와 경실련 모두 전국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 또한 있다. YMCA는 지역 분담금이 중앙으로 들어가 연방차원의 재산으로 운영된다. 지역문제는 지역YMCA에 위임되어 이루어지지만 전국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다.
경실련은 중앙과 지역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념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그러한 예로 삼성자동차문제를 들 수 있다. 삼성자동차설립문제를 놓고 부산 경실련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시각으로 찬성반면에 중앙은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삼성자동차건설의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형식으로 일단락되었다.
2. 지역 경실련은 지역문제해결이라는 역할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역내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인천의 경우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주요한 활동의 지점이다.
3. 지역단체들의 대부분이 그 지역단체들과는 기본적으로 연대한다. 경실련이든 YMCA든 지역의 경우는 활동인자들의 뿌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보다 연대가 잘 되는 편이다. 지역단체들 경우 민주화운동이라는 태생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은 서울만큼 조직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들간의 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 초기에 개발계획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
4. 굴업도 핵폐기장문제의 경우는 인천지역의 거의 모든 단체가 연대했으며 영흥도 화력발전소반대운동의 경우도 그러하다.
5. 노동법 개악반대운동을 했던 인천지역의 단체들이 그 운동후에 해산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 그때 모였던 단체들이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로 전환하였다. 이는 노조의 조합운동과 시민단체의 정책활동이 교류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6. 인천 공섭협 활동경우도 인천지역 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응한 경우이다.

61. <춘천 경실련>

1. 조직은 13개의 분과위원회(특별기구 포함)와 5개의 연대사업본부로 이루어져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시민있는 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시민과 더 가깝게 있기 위해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시민들과 접촉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민생활상담소를 개설했다. 6개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이는 시민들과 보다 더 많이 접촉하기 위한 것이다.
4. 지역단체들은 주로 지역문제에 대한 활동에 주력한다. 춘천 경실련도 봉이산 보호운동(고층건문건설 반대), 건널목 설치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 지역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5. 춘천, 강원도의 지역운동단체들과는 대부분 연대한다. 내린천 문제는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 경우이다.
6. 노동법재개정운동의 경우도 춘천지역의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연대했다.
7. 연대는 두가지 맥락에서 필요하다. 하나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안에 대한 외적 호응도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확대연대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각 단체의 고유 영역이 있는데, 여러 단체가 연대하게 되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서 연대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춘천 경실련의 상근인력은 다른 단체에 비해 풍부한 것으로 보였다. 방문시에는 간부 2명과 상근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춘천내의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62. <부천 YMCA>, 2월 21일, 이강인 실장

1. YMCA는 전통이 있다. 부천YMCA도 18년이 되었다. 전통이 있는 반면에 조직이 방대해서 그런지 기동성은 떨어진다. 사회적 사안에 대해 신속히 성명서를 내거나 집회를 여는 일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원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부천의 경우 회원이 2700여명이다.
2. 부천YMCA는 처음이 상근자 3명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60명이다. 그만큼 조직이 방대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관료화된 면이 많고 의사결정에 불만이 나타나기도 한다.
3. 다른 운동단체와는 달리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운동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단일한 운동영역이 없기 때문에 단체를 묶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기 어렵다. 회원들도 단일한 목적하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7개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 활동한다.
4. 지역은 서울과는 달리 단체들이 모두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도 원활한 편이다. 특히 부천은 더 융합되어 있다. 부천 경실련, 부천연합과도 연대한다. 부천YMCA는 지역단체들을 연결하는데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연합이나 경실련같은 단체들이 좌측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단체들을 다른 성격의 단체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유청연맹, 라이온스 클럽과도 연대하려고 준비중이다. 작년에는 지역상공회의소, 기존기능단체등과도 연대했다. YMCA가 좌, 우 중간역할을 한다.
5. 96년에는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를 내는 문제로 노총과 연대했다. YMCA와 노총관계자 중 누구를 후보로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노총관계자를 후보로 냈다. 후보지정후에도 계속 연대했다.
6. 또한 개인택시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총과 연대했다. YMCA가 노동자들의 입장과 정부쪽의 입장을 중재했다고 할 수 있다.
7. 지역단체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서울보다는 연대들이 공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천 경실련과 부천YMCA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지역단체들은 서로 뿌리가 같아 연대하기가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8. 부천 YMCA는 어느 단체들보다도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같았으며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6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64.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65.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1월 16일, 유지연 간사

1. 4인의 공동대표가 있다. 그리고 5원의 상임운영위원회 밑에 40인의 운영위원이 있다. 그러나 가장 위에 정기총회가 있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결정된다. 분과위원회는 홍보, 상담, 정책, 기획의 4파트가 있다.

2. 4개의 분과위원회는 원래 각 분과밑에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만, 정책과 기획분과는 분과장만 있다.
3. 학부모 연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화모임에 나가시던 분들 중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 88년부터 준비되었다. 89년에 발기인대화를 하고 90년에 창립했다.
4. 교육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타단체와 연대하고 있다. 사안별 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사안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사안에만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5. 학부모 연대가 교육운동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고 있는 사례로는 한국 시민단체협의회가 있다. 이는 교육사안은 아니지만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6. 노동조합과 연대한 경우는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운동이 있다. 이도 역시 교육사안이기 때문에 연대한 것으로 보인다.
7. 학부모 연대에 대해 일반인들은 전교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교조보다는 온건하고, 좌경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학부모 연대에서도 자신들이 전교조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차별성이란 전교조의 활동과는 다른 독창성이 있다는 것이다.
8. 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참교육 시민모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참교육 시민모임은 정부 기관과 연대하지 않는 반면, 학부모 연대는 공보처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외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활동 방식에서도 학부모 연대가 언론 플레이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9. 학부모 연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 학부모 연대의 창립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경우의 교육민회가 올해들어 해산한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0. 교육민회는 시민들을 회원으로 받는 시민조직이 아닌 반면 학부모 연대는 시민조직이다. 교육민회는 전문가 20인의 회비충당으로 조직이 운영되었으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산한 반면 그나마 시민들의 회비를 받는 학부모 연대는 사정이 조금 더 나았다고 할 수 있다.

66. <참교육 시민모임>, 1월 20일

1. 조직적 특성은 별로 없다. 대표, 중간간부, 실무자 식으로 되어 있다.
2. 교육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연대한다. 연대의 시기와 목적이 부합하면 대부분 연대한다. 학부모 연대는 교육사안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연대를 하지 않는 반면에 참교육시민모임은 직접적인 교육사안은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례로는 노동법재개정운동을 들 수 있다. 노동법 개악이나 PCS사업자 선정문제 등은 좁게 해석하면 교육사안이 아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형성되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다. 참교육 시민모임은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다.
4. 참교육시민모임은 교육운동을 전개할 때, 전교조, 참교육 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를 기본으로 움직인다. 이 세단체를 기본적인 연대틀로 보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단체와도 필요하면 연대한다.
5. 학교 버리나 교사 성추행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 교육이나 공부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연대한다.
6. 학부모 연대와는 달리 시민단체협의회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민단체협의회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7. 참교육 시민모임은 회원구성이나 규모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료 정리도 되어 있는 편이 아니었다. 인터뷰에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응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 적극적으로진 않았다.

6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68. <교통문화운동본부>, 2월 5일, 최진현 부장

1. 조직적 특성은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부문에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조직형이다. 사업도 정부나 타기관에 지원사업공모가 있으면 참여하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활동에 가장 치중하는 것은 언론홍보이다.
2. 처음에는 연구소로 출발했지만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시민단체로 전환하였다.
3. 연대는 사안에 따라 한다. 공선협이나 시민단체협의회같은 상설적인 연대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설적인 성격의 연대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안에 따라 연대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나 서울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그러한 예이다.
4. 언론홍보를 주로하기 때문에 방송사와 같이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KBS와 교통량 줄이기 캠페인을 했다.
5. 노동조합과 별다른 연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분명 운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력해야한다고 본다.
6.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다른 시민운동단체에 비해 연대활동의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9.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월 23일

1. 건약은 전국조직이며 지부는 서울, 전북, 광주, 충청, 부상, 대경지역에 있다.
2. 회원이 일반시민이 아닌 약사들로만 이루어져있다는 점이 다른 시민단체와는 다른 점이다.
3. 약사들 조직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임상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의 방안을 모색한다.
4. 협의체 형식으로 9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가 있다. 보건의료단체와는 항시적으로 연대 활동을 하는 편이다.
5.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한다. 민주개혁시민단체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겨레사랑 북녘 동포돕기 연대에도 참여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문제를 가지고 활동했던 의보연대의 경우는 보건의료단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6. 노동조합과의 연대는 지부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울산분회의 경우, 현대차노조와 연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건강상식을 알려준다는지의 활동을 한다. 회원들이 자기 지역의 노조와 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앙단위에서 노조와 특별히 연대하는 것은 없다.
7. 건약은 실무자의 임기가 2년이며 회원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운동단체의 실무자들과는 조금 다르다. 실무자로서 운동을 바라보는 전망이나 관점이 장기적일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70. <녹색교통운동> 인터뷰, 2월 3일, 민만기 실장

1. 회원은 교통,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교통사고 피해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녹색교통운동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 2) 교통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 3) 교통,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운동
3. 주로 사안별 연대활동을 한다.

또한 민간시민운동에 관한 상설적 연대체(한국 시민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에 대한 협의체(한국 환경회의) 등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교통운동단체들과도 연대하고 있다.
4. 다른 운동단체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운동단체들은 같은 부문(예, 교육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등)의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대부분 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운동단체들은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표방하는 가치도 다른 경우가 많아 교통문제해결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모두 연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녹색교통운동의 경우는 교통운동단체 중 도시연대와 가장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도시연대와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
5.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와 연대한다. 그러나 현재 녹색교통운동이 주력하고 있는 연대부문은 택시노동자 완전 월급제에 대한 활동이다.

노동조합 중에서는 주로 택시노조, 자노련, 지하철 노조와 연대한다. 인터뷰 대상자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자주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가 어렵하고 한다.
6. 연대하는 노동조합은 도시연대의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노동조합과의 연대는 노조구성원도 시민이며, 노조의 요구가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
8. 자문위원은 방계조직이므로 정당가입에 자유롭지만 임원조직의 구성원은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9. 소지지는 월간으로 발행되며, 제목은 “녹색교통”이다. 현재 회원용, 대외용으로 쓰이며, 무가지이다.

71.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2월 5일, 김은희 조직부장

1. 조직적 특성은 별도의 조직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교통,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연구팀을 조직한다. 연구팀은 사안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학생)로 꾸려지며 이 연구팀에 상근자 한사람이 참여하여 세미나하고 보고서를 낸다.
2.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을 맡아서 활동하려는 상근자를 정하며, 그 일은 맡은 사람이 전담하여 꾸려가는 체제이다.
3.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실무만하고 운동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4. 도시연대는 처음에 연구소로 출발하여 1년뒤 시민교통환경센터로 전환했다. 그러나 교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도시라는 것 자체를 바라봐야 한다는 판단하에 도시연대로 전환했다.
5. 시민교통환경센터는 도시연대 산하 연구소로 두었다.
6. 지역사업은 도시연대만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다. 신림동 개천 복개문제 같은 사안이 일어

나면, 그 지역의 단체들을 찾아가고, 그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모임을 조직한다.

7. 어떤 단체와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연대한 단체들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일은 안하는 것은 연대가 아니다.

8. 지하철, 철도 노조와 연대한다. 택시노조와는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는다.(녹색교통운동과는 다름)

지하철, 철도 문제는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단체나 전문단체가 연대해야 한다.

9. 교통운동단체들이 연혁이나 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통운동단체라고해서 모두 연대하지는 않는다. 녹색교통운동과 연대한다.

10. 교통문화운동본부와는 연대하지 않는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대안마련보다는 캠페인성 운동과 언론플레이를 주로 하지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

11. 도시연대,녹색교통운동,교통문화운동본부는 다소 조직성격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좀더 관료적이고 조직적으로 꾸려져있고 언론이나 정부단체와 우호적인 느낌을 받은 반면에 도시연대는 그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였다.

5. 구사회 운동단체

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본 조사원이 조사한 단체들 중 한국노총과 더불어 가장 큰 조직인 듯하다.
- * 조직상 특성 - 주지하다시피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되면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일한 노동조직의 필요성하에서 그간의 투쟁의 성과를 모아 설립되었다. 이미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서 한국노총이 있었으나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어용화되어 있다는 비판하에 진정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현재 각 산별 연맹 단위로 산하 조직이 가입되어 있으며 산별노조가 아닌 대기업 노조로서 대우노련과 현총련이 가입되어 있다. (현총련은 최근 자동차연맹, 금속연맹과 통합하여 금속연맹으로 단일화됨)
- * 회원교육은 개인 회원이 아닌 산하 노조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체로 정기적 혹은 사안별 토론회나 일상적 단위노조 교육, 수련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 * 회원확보도 단위노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 하고, 전체적 차원에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노조 설립 작업,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노조에 대하여 민주노총에의 가입 유도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하다.(조사원의 생각임)
- * 예산은 주로 산별연맹에서 납부하는 의무금의 비중이 60%정도 차지하고 있으나 산하 노조의 사정에 따라 일정치가 않은 듯하고, 이와는 별도로 작년에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산하에 기획사와 여행사를 두고 그 이익금을 활동에 충당하고 있으며, 추석 특관 사업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 * 연대활동의 부분에서 있어서는 외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중매체, 정당, 외국기관)들과의 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과는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운동단체와의 연대는 대체로 본 조사연구에서 구분한 '구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단 외국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민주노총이 국제자유노조(ICFTU)에 가입하고 있으며, 작년 총파업투쟁 당시 국제자유노조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
- * 작년 한해동안에는 연초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총파업 등으로 인해 시위, 집회 등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그로 인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대체로 사안별로 협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편한 관계는 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노사정 협의회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공조의 모습을 보였으나 마지막에 그러한 공조가 깨어지면서 개별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노총을 상당히 경쟁적 상대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아직 한국노총이 어용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 조직규모가 다른 단체에 비해 크고, 부서별로 분화되어 있는데다, 최근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조직전체가 매우 바쁜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 조사하는데 힘이 들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듯하다.

7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 민주노총과 더불어 본 조사원이 조사한 단체들 중 가장 큰 단체이다.
- * 박정희 정권 시절 전체 노동조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상급단체로서 위로부터 설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기부터 어용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현재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듯하다.

* 87년 이후 외부 민주노동세력의 비판과 이에 기반한 내부적 개혁세력들의 노력으로 특히 96년 말 총파업투쟁을 계기로 조직의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한다.

* 산하 조직은 산별 연맹의 형태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별연맹이 아닌 형태로는 담배인삼노조가 가입되어 있다.

* 회원교육은 노조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조간부의 정규교육, 사안별 지방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회원확보를 위해 조직강화본부를 중심으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노조조직화 사업, 상급단체 비가입노조를 중심으로 한 가입화 유도 등을 주로 하고 있다.

* 다른 단체와 달리 여의도에 자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임대료, 매장을 이용한 판매사업등을 통해 상당량의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산하 연구상담소, 그리고 몇몇 자재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 연대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작년 한해 노동부, 경총 및 기업단체, 언론사(동아일보, KBS), 정당(새정치국민회의) 등과 많은 연대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조직이 매우 크고 부서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최근 노사정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74.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조직상의 특성 - 전 회원이 교수이므로 전문성이 매우 높으며, 초기와 비교하여 회원수가 많이 증가하고 조직역할의 분화가 커졌으며, 지역별 지회활동으로 전국적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 회원교육은 연 2회 회원연수회를 갖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관계법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회원관리는 각 대학별 대의원을 중심으로 중앙과의 교감으로 회원이 관리되는 상황이며 그다지 회원관리를 잘하고 있지는 못하다.

* 예산은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지는 못하며, 외부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 책자 간행 등의 수익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없다.

* 작년 한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정당과의 연대활동은 없으며 단지 언론(한겨레신문, 월간 말, 월간 길)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적은 있다.

* 운동단체와의 연대는 타 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그 대상도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75.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설립당시 민민운동진영을 총체적으로 묶어내고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결성되었으나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운동단체들이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위상의 문제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 듯하다. 현재에는 산하 부문운동단체들의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조직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지역민을 상대로 한 사업이 용이하게 수행되고 있다.

* 회원교육은 1년 최소 2회의 수련회가 있으며 교육용이면서도 대외적 성격을 띠는 정책토

론회가 있다.

- * 회원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으며 가입 단체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 * 재정은 회비 수입이 저조하여 회비의 비중이 전체의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후원금이나 수익사업등을 통해 일부분을 보충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차입금, 미지급금 등이 전체 재정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확보를 위해 후원의 밤이나 전시회 등을 행하고 있으나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외부기관과의 연대활동은 작년 한해 8.15 통일행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와 연대를 한 경험이 있으며, 북한동포돕기모금사업을 한겨레신문사와 연대하여 수행한 적이 있다.
- * 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대상단체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 한두번의 연대가 아니라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 * 조사에 매우 친절하게 응해주었으며, 연구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76.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 1-1. 과거의 카톨릭 농민회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전국본부와 지역조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생산자인 농민뿐 아니라 14개 지역의 소비자들을 포괄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조직을 양대축으로 하고 있다.
- 1-1. 소비자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6-1. 환경정책의 위기와 농업의 위기가 한뿌리에서 나온 것이라하여 먹거리를 중심으로 개선해나가려고 농약비료등의 화학농법에 의하지 않은 생명의 농법을 교육하고 있다.
7. 지역조직의 분담과 후원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역조직의 분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7-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고, 없으면 우리끼리 해야된다. 원래 이 운동은 우리끼리 하자고 시작한 거니까. 굳이 생각해보자면 회원비를 늘리는 방법과 자체수익을 늘리는 방법등이다.
9. 회원관리는 전국본부에서 안하고 지역조직에서 하는데 생산자회원관리와 소비자회원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소식지를 통해서 만나지만 일상적으로 생협교육이라든지 생협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을 통해서 회원관리가 되고, 생산자들은 원래 주 단위등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 있다.
- 9-1. 생협의 이용과 농산물매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시민들과 접촉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거리서명운동과 유인물배포를 한다.
- 9-2. 시민들의 건강문제과 수입농산물의 문제를 다루므로 시민들과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 11-1. 간헐적으로 연대의 경험이 있었다. 우리들의 앞으로 활동방향도 지역공동체로서의 일반 소비자 조직도 중요하지만 직장단위로 된 이미 조직화되어있는 노조도 좋은 활동범주로 상정하고 있으며 연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7.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 * 단체의 성격이 연합체나 협의체라기보다는 '의료통합' 이라는 단일사안에 대하여 기존의 성격에 다른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연대하는 형식을 지닌 '연대회의'이다. 따라서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도 연대회의의 산하단체라기 보다는 의보통합 사안에 대해 연대활동을 펼쳐나가

는 것이며 '연대회의'는 단지 그러한 연대의 공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단체의 성격상 회원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 교육 차원에서 도시지역주민조직들을 초청하여 의보통합과 관련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관리의 프로그램도 없다.

* 재정은 가입단체의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입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 재정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전에는 자료집이나 홍보물을 판매하여 재정에 충당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이것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재정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본 단체가 외국기관 즉 독일 프리드리히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기관에서의 후원은 본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한 단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가 있었으며 민주노총에서 작년 총파업과 관련하여 한번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을 뿐 여타 단체에서는 전무하였다.

* 외부기관과의 연대활동은 구사회운동의 여타 대부분의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 편이며, 운동단체들과의 연대는 참여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전업으로 활동하는 상근자가 1명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활동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사무실도 없어서 한충련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연대회의의 위상을 잘 드러내주는 측면인 듯하다.

78.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22개 상담소들이 95,6년 명동성당 농성 이후 결성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단체의 실무자들이 따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단지 상근간사 한사람만이 중앙에 있으며 기타 의장 및 실무자들은 나름대로의 지역 소속 단체를 가지며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 회원도 일반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하 상담소의 실무자들이 전부이며, 이들의 활동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는 정도이다.

* 회원교육과 관련하여 상담소 실무자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된 것은 없으며, 단지 연2회 수련회와 실무자 computer교육이 전부이다.

* 회원관리도 정기적으로 사무국 회의가 있을 뿐이며 기타 사안별 혹은 수시적 교류를 통해 친목을 강화하는 정도이다.

* 재정은 회비의 비중이 낮고 개인 후원금의 비중이 전체의 약 8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회비는 여타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산하단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의보통합연대회의와 마찬가지로 본 단체는 국제단체의 기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재정보호를 위해서 프로젝트 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국제단체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 여타 단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국기관과의 연대활동이 많으며 교회 및 기독교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많은 편이다. 실무자들 중에서도 교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 운동단체들과의 연대는 주로 노동단체들 및 기독교단체들과의 연대가 많은 편이며 노동관련 연구소들과의 정책교류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 의보통합연대회의와 마찬가지로 자체의 사무실을 가지지 못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 협의회가 가지는 비중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79. 부천연합

* 전국연합의 산하단체라기 보다는 전국연합의 지역지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단일단체가 아니라 산하에 많은 개별 단체들을 두고 있는 연합체의 성격이 강하다.

80. 원주민주청년회

81.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1-1. 여타 시민단체와 비교했을 때 조직상 특성은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형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판매, 유통 등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다.

1-1. 전국적 체계라는 점에서 외적으로 변한 것은 없고 내용면에서 초기에는 회원들 중심의 사업을 했었는데 95년도 3월 이후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소비촉진의 차원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6-1. 몇가지 행사가 회원들을 위해 있는데, 이를테면 밀밭밟기, 밀밭그리기, 글쓰기행사, 밀사리행사(밀 수확기에 밀껍도 씹고, 밀도 구워먹고, 밀부침개도 해먹는 행사) 등이 있다.

7. 우리는 처음부터 시민운동이 살아남는 길은 사업형 운동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자급자족으로 해서 처음부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없었다.

7-1. 계속 사업형 운동을 할 생각이다. 93-5년동안 정부의 지원을 매년 1억씩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못느꼈고 재경원도 우리밀이 자립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지원을 안받고 있다.

9. 회원관리는 회원용 소식지를 1년에 두차례씩 보내고 있고,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와 연관된 회원관리를 하고 있다. 물론 생산자 회원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하나 소비자 회원의 경우에는 행사 이외에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렵다.

9-1. 초기에 우리 회원이 급격히 늘던 시기에는 우리밀 제품에 대한 독점적 소비권을 회원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시장개방이 되어서 일반시민에게 제품을 다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은 건강한 우리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잘 좋고 값싸게 제공한다는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지 모임이나 조직의 형식은 아니다.

9-2. 우호적이다. 오히려 갈등보다 격려가 많다.

11-1. 연대활동은 당연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밀이 자리잡기까지는 단체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다. 회원출자에서도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고, 소비촉진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었다.

82. 부산 참여 자치 시민연합

1-1. 전문가위원회와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조직만의 특성이다.

1-1. 처음에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라는 지역명망가, 재야인사를 중심으로 한 인적인 대표모임이었는데 활동을 거쳐 지금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당시 200명은 민주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수였고 지금의 400명은 완전히 이전의 200명이 빠지고 새로운 400명이 충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 6-1. 우리는 자치사랑방이라는 전문가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 회원들에게 시민의 권리의식을 되찾게 해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7. 우리는 전적으로 회원회비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 7-1.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자체 내지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해나가는 계획이 있다.
9. 모든 행사프로그램이나 소식지를 발송하고 주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전화연락을 하기도 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연계시켜서 활동하기도 한다.
- 9-1. 대중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거리서명운동이나 피켓팅 그리고 유인물 배포 정도를 통해서 시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 9-2. 우호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시민의 상식적인 틀과 전문가들의 틀이 차이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감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맞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내고 끌어내는 것이 일이라고 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갈등의 경우 그러니까 뇌물시장의 경우 전화로 시민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했는데 우리는 주로 설득의 방법을 사용한다.
- 11-1. 노동법 안기부법, 북한 어린이 동포,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모임들의 사안에서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 계급의식에 의해 노조가 결성된다면 시민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노동자든 자본가든 떠나서 공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의 교집합은 일정정도 있고 대도시의 노동자들이 사무직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과 결합되는 부분의 사업내용과 노조원과 결합되는 사업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83. 울산 민주시민회의

- 1-1. 다른 시민단체들과는 달리 울산지역의 시민자치를 확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광역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제시의 활동을 하고 있다.
- 1-1. 조직형태는 변화가 없지만 활동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설립초기에는 재야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민주화, 민중의 생존권, 통일등 전통적인 재야운동의 측면이 강했었는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정치적 자유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신장되면서 지역문제를 중심으로한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운동영역으로 바뀌었다.
- 6-1. 이전에는 의식적인 내용을 주로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고 사안별로 교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없는 셈이다.
7. 이전에는 회원회비의 비율이 높았었는데 자꾸 떨어져서 30퍼센트 이하까지 되었다. 그래서 재정사업을 통해서 충당하고, 그것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힘들다. 시민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통과된다는데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 7-1. 우선 자체 재정수익사업을 어렵지만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대체로 봄, 가을 문화예술 초청공연을 통해서 재정수익을 얻는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많이 확보할 계획이다.
9.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토론회, 심포지엄도 자주 하는 편인데 주로 행사때 회원을 참여시키고 사업을 통해서 관리한다. 일반적인 회원행사가 예전에는 잘되었는데 요새는 잘되

지 않는다.

9-1. 우리는 다른 시민단체에 비해서 시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이다. 예전에는 시민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시민 이야기마당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시민과의 접촉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이야기마당은 정치, 사회, 문화등 각 영역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버라이어티 쇼처럼 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하였다. 신역사기행이라는 형태로도, 또 토론회 참여요청이라는 형태로도 노상기자회견, 서명운동등의 형태로 시민들과 만난다.

9-2. 전통적인 재야단체와는 달리 우리단체는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으며 이전의 시각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11-1.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을 하는데는 두가지 장애가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가 노동자들을 잘 안내해서 시민의 자치와 생활적 요구에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고, 다음으로 노동조합 자체도 아직까지 사회개혁투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지역문제, 지역현안문제, 지방자치문제로 관심을 돌리기에는 자기들의 문제에 너무 급급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문제를 놓고 수평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84.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1-1. 구성원은 중간층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여타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활동량은 많으나 우리단체 자체의 사업에 대한 참여도는 낮다.

1-1. 초기에는 지자체등에 참여하기 위한 연대조직으로 만들어졌다가 이후에 지역민중들의 단일운동단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운동의 방향이나 사업의 방식, 문제의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6-1.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사회적인 사안별(예를 들면, IMF에 관해서라든지..)로 학습과 토론을 한다.

7. 지금정도 규모의 예산을 조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애초에 계획했던 시민사업은 진행할 자금이 없어서 못했다. 시민사업을 하려면 지금 예산에서 5천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

7-1. 지금 회원이 사회운동에 경험이 있는 소수인데 회원을 다수로 확대하고 회비를 늘려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다.

9. 우리 회원들은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소식지를 발송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합되고 현안이 생기면 사업에 참여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광역시내의 동단위나 구단위 모임으로 회원들의 활동을 끌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회원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동네에서는 주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9-1. 지역에 갈등이 되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주민조직의 대표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대전을 잘알자라는 형태의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또 주민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9-2. (위의 응답에 이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민들은 우리단체에 대해 우호적이며 그들은 전체를 놓고 볼 때 소수파이다. 월드컵 경기장을 도심한가운데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도심밖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결정이 변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해당사자들의 비판이 있었고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다.

11-1. 연대활동의 경험이 있다. 우리단체의 주요세력중의 하나가 지역의 노동조합이다. 일반노조원까지의 참여는 아니지만 노조간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법, 안기부법철폐운동을 할 때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단위사업장에서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박해하였을 경우에 공동대책위의 참여를 조장한다든지 하는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노동운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연대활동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85.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1-1. 김영삼 정권 출범 후 한국사회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영합하는 일군의 지식인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노동자 민중 운동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출발하였으며, 정책대안을 제출하고 노동자 민중 운동과 연대하기 출발하였다.

1-1. 설립초기와 지금의 조직체계상의 큰 변화는 없다. 초기에는 실무자 부족으로 곤란을 겪었으나, 지금은 실무자가 생겨서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정도의 차이 밖에는 없다.

7.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많다. 주로 회원회비에 의존하고, 모자랄 때는 주요 멤버들에게 특별회비를 받아서 충당한다.

7-1. 재정문제는 운동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궁리하고 있다.

9. 회원관리는 토론회 프로그램과 회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토론회가 한달에 평균 서너번은 있으니까...

9-1.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예를 들어 전자주민카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총파업 등)은 주로 연대사업을 많이 한다. 그럴 때 연대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접촉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접촉하는 방식은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9-2. 일단 시민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선진적인 부분이므로 대중과의 폭넓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판단이 좀 다르다. 주요한 정치, 정책적인 이슈나 나올 때 시민과 만나지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일반시민과의 관계를 일상적으로 가지는 프로그램은 별로...

11-1. 전체적으로 노동자 민중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권과 자본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이 주체로 서고 우리는 그들이 주체로 서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의 문제라든지,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막아내는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86. 인천 산업사회보건연구회

- 1-1. 회원들이 주로 보건의료인들이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들이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1-1. 처음에는 교육부, 조사부, 홍보부 등으로 각 부서를 편제했었는데, 회원들의 활동조건자체가 부서활동을 하기 어려워서 부서를 없앴다. 지금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만 있다.
- 6-1.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월례강좌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정기적으로 특강형식으로 주로 사회성이 강한 과제별로 하고 있다.
7.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자체조달이니까 회원회비와 사업수익비만이나까 예산확보가 힘들다.
- 7-1. 회원이 40명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일년에 3천만원 이상은 확보된다. 1인당 회원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 회원들에게서는 예산이 더 이상 나올수 없고 자치단체나 타단체로부터 사업을 용역받아서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인천시에서 시민단체기금을 신청하라 그래서 준비중에 있다.
9. 송년회가 있고 기회가 닿으면 봄에 야유회나 등산을 한다. 나머지는 주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 9-1. 우리는 일반시민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 9-2. 우리는 갈등적이지 않다. 주로 하는 활동중에 상담활동이 있는데 시민들이 필요하고 궁금한 것을 직접적으로 도움받기 때문에 그렇다.
- 11-1. 우리는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자지원단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고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어쨌든 보건의료인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일정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전문지식이나 경제적인 것을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7. 한국유권자운동연합

- * 명칭은 '.....연합' 이지만 실제로 산하단체를 두고 있는 연합체가 아니라 일반 시민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일단체이다.
- * 주권재민의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아래 선거시기에는 공명선거 감시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분석 등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비선거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 감시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 * 회원교육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회보나 자료집으로 회원교육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회원관리도 행사가 있을시 관련된 내용물들을 우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정도이다.
- *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가 50%를 넘지 않으며 개인후원금이 회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익사업이나 행사가 있을시의 협찬 등을 통해서 재정의 일부분을 충당한다. 재정수입이 월별로 불규칙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재정보호를 위해서 올해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 *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성격의 일들에 다방면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단체는 공명선거나 의정활동 등과 같이 비교적 자신의 분야를 한정하여 일관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및 의정활동과 연관하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어 가는 듯하다. 연대활동의

경우에도 대부분 선거와 관련한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 매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평가하여 책자를 발간하는데 상당한 정성을 들이고 있으며 책자의 내용에서도 상당한 전문성과 노력을 감지할 수 있다.

88. 서울 YMCA

담당 부서는 “시민사회 개발부”였는데, 대규모 조직 답게 대단히 분주했다. 전체적으로 정보력이나 시민 운동의 경험 및 자료가 풍부한 탓인지, 인터뷰에 대해서 다소 관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꼭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89. 대구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래 사회복지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사무국장 자리를 떠맡게 되었다면서 다소 쑥스러워 했다. 나머지 2명의 상근자들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바로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왔는데, 현재도 좌파 학생운동의 조직화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바쁜 분위기는 아니었고, 활동가 개인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최소한의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았다.

사무국장 개인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폐쇄성이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평가였다. 다소 의외였다. 이에 관련하여 사무국장은, 환경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 됨으로써 전체가 한꺼번에 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노동운동과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단체들간의 개방적-수평적인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90.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간사 1명,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비정기적으로 근무한다. 사무국장은 이전에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였고, 부인의 권유에 의하여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서 독특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운동가였던 전력 때문에 환경운동을 노동운동의 부문 운동으로 사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울산에는 모든 환경문제가 다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이다.”라는 그의 발언은, 지역사회 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 및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방향성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명망가 대표의 조직에 대한 입김이 너무 세서, 사무국장이 다소 짓눌려 있다고 들었는데, 안타까운 점이었다.

91. 원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상근직원 1명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운동권 출신임에 반해서 상근 직원은 대

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환경에 대한 다소 개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정치성을 띠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나, “순수한 환경 “보호” 단체로서의 성격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그녀의 말은 이런 측면을 잘 드러내 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다지 현안이 많거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다소 느슨한 분위기였다. 상근자들도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단체에 상근한 지 1년이 채 넘지 않았다.

92. 환경운동연합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여느 대규모 사무실과 다름 없을 정도로 부서별로 업무와 공간 배치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자료 관리도 비교적 조직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전국조직으로서의 특수성이 반드시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전화 연결이 좀처럼 되지 않았던 것이나(전화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설문지를 처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는 것 등, 규모가 큰 행정 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료적/형식적 측면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인터뷰 질문 내용 중에서 의사결정의 비민주성과 관련하여, 최열 사무총장의 권위나 연륜이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다. 이는 사무처장 인터뷰에서도 드러났고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인적 구성의 문제, 즉 최열 사무총장과 다음 위상의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최소 5년이라는 점이 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환경운동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왔던 권위나 연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방문시 사무국장의 개인적 의견에서도 나타난 바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서 폭넓은 전망과 공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회원 관리 및 확대의 측면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들에 비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93. 녹색소비자연대

1-1. 민간단체의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기구적인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적인 성격이다. 기구적인 성격은 다른 단체와 같다. 활동적인 성격은 교통신포등을 바꾸거나 시장조사를 하는 등의 활동에서 우리 나름대로 훈련을 시킨 사람들, 그 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적인 특성이다. 그들은 사무국의 지원 아래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단체의 내용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이외에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1-1. 설립초에 비해서 지금은 과도기이다. 초기에 하나의 이슈로 모아진 멤버쉽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고 따라서 사무국 중심의 운영, 사무국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다. 회원들의 동질적 분위기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무국의 독주가 나타나는 것이 초기와 비교했을때의 변화이다. 이슈 중심의 활동이기 때문에 멤버쉽이 자주 교체되는 것도

그런 현상을 낳은 하나의 이유이다.

6-1. 회원교육프로그램으로 녹색소비자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코어(core) 리더쉽 형성을 위한 정책협의회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녹색소비자 대학은 1년에 1회 하는데 3개월 정도 12강좌를 한다. 정책협의회는 연간 2회 정도를 하고 있다.

7. 예산에서 회비구성비율이 높는데 회비징수율이 낮다. 또 정부프로젝트의 경우도 많이 있지 않고 뚜렷한 재정사업도 없는 상태이다.

7-1. 세가지인데 첫째 회비징수율을 높여서 달 500만원 정도 확보하여 최소 경상비에 충당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활발히 하거나 사업과 연결하여 인건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부터 특별한 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일일호프나 애장품 판매등이 있다.

9-1.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주로 매스컴을 활용하고 있다. 매스컴의 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단체 홍보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간단한 시민조사사업 등을 통해서 조사요원들이 단체 홍보를 겸하고 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캠페인나 소비자 피해구제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거리서명이나 공청회들을 통해서 만나는 방식도 다 활용하고 있다.

11-1. 외국의 경우 소비자 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이 일본에서는 갈등적이었고 북구 유럽에서는 협조적이었다고 본다. 소비생활구조는 노동력 재생산구조이기 때문에 이중착취를 방지하려면 양자가 협조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는 노동조직이 산별이 아니라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직이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현상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끼치는 사회적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조직과 노조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임금인상을 자제시켜야 된다고 소비자운동조직에서 이야기하면 노조는 결국 인플레이가 될텐데 그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 조직이 깊은 연대의식을 갖기 보다는 표피적인 마찰현상이 많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의 연대목표는 조직연대라기보다는 정책연대나 정책갈등의 수준이다.

94. 군산 환경운동 시민연합

솔직히 말하여 이 단체가 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했다.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거의 하는 일이 없는 사무실처럼 보였고, 오후 1-2시 쯤에 상근자 2명 모두가 퇴근을 한다고 했다.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에도, 별로 활동이 없다며 응하려 하지 않았다.

설문지가 계속 도착하지 않아서 재 방문도 했었으나, 사무실은 닫혀 있었다.

95.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월 23일

1. 건치는 건약이 약사단체인 것처럼 치과의사라는 전문인으로만 이루어진 단체이다.

그러나 건약과는 달리 약사들이 상근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아닌 상근자를 별도로 두고 있다.

2. 7개의 지부가 있으며 창립된지 10년이 되었다. 역사에 비해 상근자수는 적은 편이다. 중앙에만 3명의 상근자가 있으며 상근자가 있는 지부는 3곳뿐이다.

2. 건치는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활동한다. 구강보건과 관련된 것들을 사회에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등을 고민한다.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문제도 건강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수돗물 불소화문제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연대활동을 한다. 지역차원에서는 88-89년에 푸른

치과를 설립한 바 있다. 푸른치과는 공동출자,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서민들을 위한 치과이며 사업장 검진활동, 소의계층검진활동 등을 했다. 그러나 현재 푸른치과는 재정적인 문제로 그 활동이 미미한 편이다.

4. 9개 보건의료단체와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연대한다. 다른 경우는 사안에 따라 연대하며, 96년 노동법 재개정 운동이 그러한 예이다.

5.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의회와도 사안에 따라 연대한다.

6. 연대의 기준은 양심적, 도덕적 활동에서 시작하여 건강권이라는 문제를 기초로 결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내부에서 일원화된 것은 아니다.

7.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은 96년 노동법문제에 대한 활동이 있었고, 앞에서 이야기한 푸른치과가 있다. 푸른치과는 주로 공단근처에 있었으며 지역운동과 결합하기도 했다. 지금은 푸른치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개별병원에서 실천활동을 벌인다.

8. 인터뷰 대상자는 본 조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나, 지금까지 여러 조사들이 왜곡되어 발표된 실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문내용에 있어서 밝힐 수 없다고 일관한 부분이 많았으며 자료제공에도 소극적이었다. 이는 건치 내부의 방침이라기 보다는 상근자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보였다.

9. 건치는 운동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로서의 개별 치과의사들의 고민들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6. 부산 경실련.

주소 : (601-032) 부산 동구 수정2동 247-28 동부빌딩 4층.

전화 : 464-6669.

연락 : 손치훈 기획부장.

통신 : ccej부산 (나우), ccejps (천리안).

방문 : 98. 2. 6.

회원관리 : 정식으로의는 업습. 시기적으로 자치대학 등을 예정. 필요성에는 동의함, 비공식적인 모임은 존재함. 이슈별, 사안별 강좌 등. 격월 혹은 월별로 진행. 기타 모니터 모임 등.

예산문제 : 회비 50%, 시에서의 지원은 일회적으로 10% 내외.

개인적으로 회비확보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

국가 지원은 경상비 지원이 아니어야 함. 전기, 전화 등 세금감면 등 중심으로.

시민들과의 갈등 : 양자 책임으로 생각. 이후 과제일 듯.

선거 출마 : 개인적 출마는 있었습. 높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낙선.

선거법 개정되지 않고는 조직적 지원은 어려움. 개정운동이 필요.

정보 통신 교류 : 의의에 동의. 현실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경실련 내부 CUG는 개설되어 있음. 접속률 낮고 별로. 여기에는 거의 모든 문제가 얽혀있는 터.

9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9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주소 : 이사했슴. 보완 要.

전화 : 3143-2432.

연락 : ?

통신 : ?

방문 : 98. 1. 17. (1차), 98. 2. 17. (2차).

특기사항 : 어려운 단체였슴. 같은 층에 국민신당 지구당이 있는데, 잦은 교류를 보임. 단체 체계 역시 그리 명확하지 않음. 2차 방문 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고, 서류봉투로 1부의 질문지만 전달받음. 쉽지 않았던 전화연락 때 무척 바쁜 듯한 인상이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방문할 예정.